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5일)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국제선명상대회 열린다

9월 23~28일 ‘2024 불교도 대법회’
28일에는 광화문 일대서 ‘선명상대회’
종단 첫 수계법회 · 승보공양 재현도
선명상대회 · 음악회로 국민행복 기여
“마음 · 세계평화 위한 염원 담아 결집”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 선명상대회가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9월 23~28일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일환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불교문화 계승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2024 불교도 대법회’ 개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24년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요행사로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승보공양 등 전통문화 재현 △2024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가제)‘이고득락離苦得樂-기쁘지 아니한歌’ 등이 있다. 조계종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수승함을 확인하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향한 불자들의 염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9월 23~28일, 광화문광장 옆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에서 진행되는 전통등 전시는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주제로 전통한지로 제작된 장엄등 20여 개가 전시된다. 9월 25~27일에는 명상, 전통, 청년, 템플스테이 마당 등 총 4개 주제 체험부스 20여 곳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도 열린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원로의원이 지도위원으로 나선다. 교구본사와 계층별 수계대상자 등 약 3만 명이 수계법회에 동참한다. 수계법회 식순은 〈재가불자 수계의범〉을 기준으로 하며 7~8월 교구별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계법회 후에는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공양대상 스님은 원로위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위원 등 600명이며 가사공양과 헌공 등이 검토 중에 있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 국제 선명상대회’는 9월 28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회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 하에 해외 초청 명상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선명상 실참이 준비됐다. ‘우파야 젠 센터’ 주지 로시 조한 핼리팩스, 달리이라마 영어 통역 전담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엔지니어 차드 멩 탄, 잡지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수행 안거센터 운영자 직메 린포체 등이 동참한다.

국제 선명상대회는 9월 30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기 봉선사, 한국문화연수원, 서울 홍대선원, 부산 쿠무다, 계룡 홍제사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10월 1일 국제 컨퍼런스 이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조계종은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종교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도 역량 결집은 물론 전통불교문화 계승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국민행복 기여, 마음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 염원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종도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포교 전법은 매우 희망적”이라면서 “아름다운 불교 전통과 거룩하고 장엄한 불교의식을 전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주고, 더욱 확고한 신뢰와 불교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젊고 새로운 불교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저력을 펼쳐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각회는 7월 3일 창립총회에서 이헌승 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총회 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를 법사로 법회를 진행했다

제22대 국회 정각회 창립…“상생정치 구현” 다짐

7월 3일, 국회 정각선원서 창립총회
회장에 이헌승, 부회장에 김영배 의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제22대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신임회장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국회 정각회는 7월 3일 서울 국회본관 정각선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5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정각회의 회장 소임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임기는 20대 국회 전반기인 2026년 5월 29일까지다.

4선 중진 의원으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승 정각회장은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정각회는 순수한 불자모임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불교 입법 수호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한다”면서 “불교 현장에 먼저 다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헌승 회장은 주호영 명예회장에게 정각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명패를 전달했다. 주호영 명예회장은 회원들에게 “정기법회와 명상수업 등 정각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각회를 활용해 신행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 정각회에서는 추미애, 박대출, 서영교, 이개호, 이종배 의원이 고문을, 주호영 전 정각회장이 명예회장을 맡는다. 임원진은 김영배 수석부회장, 송언석, 김병주, 김형동 부회장, 이수진 수석간사, 서범수 입법지원위원장, 민병덕 종단지원위원장, 최은석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각회는 이날 22대 창립총회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자광 대종사를 법사로 정각회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광 대종사는 “국민을 위한 원력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송현광장 이승만기념관 계획 폐기하라”

7월 4일 종도 명의 성명서 발표

태고종이 전체 종도 명의로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태고종은 성명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로 불교계의 법난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려 오랜 내홍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친일불교 청산과 근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의 자정의 노력을 무산시켰고 우리 불교사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송현광장의 의미도 다시 조명했다. 태고종은 “광장 일대는 4.19혁명 당시 무력에 희생당한 여중생들의 모교인 덕성여중이 위치했던 곳이며 수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당한 통한과 아픔이 서린 공간”이라며 “이런 장소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이번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우리 불교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태고종은 헌법 정신과 민주질서를 파괴한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 폐기와 함께 서울시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동조 중단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직속 기관 신설로 역량 강화

미래특위 7월 3일 6차 회의
불교 홍보 · 연구 기능 강화
7월 17일 전문가와 공청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조직 슬림화에 나선 가운데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가 7월 3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에 나섰다. 총무원장 직속 홍보실 신설, 국가유산청 출범에 발맞춘 문화유산 정책 수행에 중점을 둔 종무기관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주요 특징을 중점 보고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직속 기구로 조계종 연구소와 홍보실이 신설되며 종무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 11부실 18개국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총무원장 직속 홍보실은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발행 등이 주요 업무다. 기존 홍보국이 종단 사업의 홍보에 관한 공보 역할을 해왔다면 직속 홍보실은 조계종 대내외 홍보 기능을 도맡는다. 시대에 맞는 홍보콘텐츠 개발로 젊은 층을 유입시키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통해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지역 불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연구소는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을 통합한 것으로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씽크탱크다. △교재개발 중심에서 국가 및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및 대응 △미래전략 개발, 종단 중장기 계획 등 전문적 계획 수립 △종책별, 분야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종단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문화부와 포교원에서 진행하던 불교문화콘텐츠와 각종 포교매체 개발을 수행할 콘텐츠 조직이 전법포교부에 신설된다. 미래불교를 대비한 조직으로, 전법 포교에 필요한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은 물론 콘텐츠 개발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각종 불교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특히 국가유산청 출범에 조응하는 문화유산 정책 기능 강화와 함께 각종 위원회 정비로 대사회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문화부는 문화진흥부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정책국과 문화유산국을 둬 국가유산청 정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부에는 사회국과 시민사회국을 둬 사회노동위원회와 환경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중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중심 1원체제를 통한 총무원장 관장 영역 확정으로 업무 하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봉 스님은 "삼원통합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와 교육 정책에 대한 개혁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하중은 전결체계 구축과 부서장 권한 위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교육과 포교, 홍보 등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가 큰 만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특위는 7월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미래특위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는 7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7차 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주 당선자 "미래세대 전법·포교 최선"

7월 2일, 진우 스님 예방서
"종단과 소통해 시너지 내길"

정원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자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당선자는 7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정 당선자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찰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다시금 사찰을 어린이·청소년·젊은이까지 모든 계층이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사찰 내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신행생활이나 문화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중앙신도회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8이라는 숫자는 불교적 의미가 크다. 3계 28천(28하늘)을 상징하며 중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아침에 범종을 28번 타종하고, 가람배치도 28천을 기준으로 한다"며 "중앙신도회가 명실공히 우리 불교, 우리 종단의 최대 신도조직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을 세상에 잘 알리도록 각자 자리에서 함께 역할을 모색하자"며 "선명상을 불자 나아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회적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종단과 잘 소통해 포교·전법의 긍적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사회가 개인화되고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께서 일러주신 '5초 우선 멈춤' 선명상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 역시 5초간 우선 멈춤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선명상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정원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자(사진 오른쪽)가 진우 스님에게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올림픽 선전 기원…불심으로 메달까지"

조계종 체육인전법단, 7월 3일
진천 선수촌 법당서 기원법회
이혜경 등 불자선수 10명 동참


'2024 파리올림픽' 앞두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법회를 열어 불자선수들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 모인 동료 선수와 모든 이들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하고 훈련한 실력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호해 주시옵소서."

7월 말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앞두고,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이 그간의 노력만큼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이 불자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법당에서 마련한 법석에서다.

선전기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선업 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과 유도(이혜경), 배드민턴(채유정), 역도(김수현), 체조, 사격 등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각 분야 불자선수 10명이 참석했다.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선배 불자 체육인 30여 명도 법석에 함께해 후배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이날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의 법문으로 불자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업 스님은 "국가선수촌에 들어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용이 됐다는 의미다.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 올림픽에서 여의주까지 획득해 최고의 용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경기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체육인 불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지와 검지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손가락 하트'를 해 보인 선업 스님은 "손가락 하트는 물고기 모양과도 같다. 운동하다 마음이 지칠 땐 손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스스로가 엄청난 인물임을 다시금 확인하라"며 "큰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문을 마친 선업 스님은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합장주를 끼워주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인사말 영상에서 "파리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이다. 그래도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며 "힘들 땐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훈련 기량 100%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도에 출전하는 이혜경 선수가 불자 선수단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고, 선수들은 합장한 채 굳은 의지를 다졌다.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불자 선수들에게 내면의 자유와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와 행복, 걸림 없는 자유와 무한한 자비심으로 파리올림픽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법회 회향 후 이혜경 선수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스님들께서 법회를 열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다"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역도 선수도 "선업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기운이 난다. 이런 법회가 많아지면 우리 선수들이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다"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듯 오늘 얻은 좋은 기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천=김내영 기자

불국사 주지 후보에 종천 스님

7월 2일, 산중총회서 선출
83명 가운데 67표 득표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직무대행 종천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불국사는 7월 2일 경내 무설전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종천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구성원 123명 가운데 83명이 참여했으며 종천 스님은 67표를 득표했다. 경쟁을 치른 지정 스님 9표, 정오 스님 3표, 각천 스님이 2표를 각각 얻었다.

종천 스님은 주지 후보 선출 직후 당선 인사를 통해 "어른 스님들의 덕화와 불철주야 정진하는 선방스님들의 수행, 지역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말사스님, 묵묵히 소임을 맡고 있는 소임자스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천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사미계를, 199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석두암과 연주지암, 오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불국사 주지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불국사가 선거를 통해 주지 후보를 선출한 것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으로 선거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임은호 기자

대한민국 최대 관음응신상

-관음보살님의 신통한 위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40여년간 불교미술조각에 외길을 걸어온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김승엽 소장은 권정학 선생의 문하생으로 생의 마지막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33관음상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경력
1987 정통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동국대 주최)
1989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조계종 주최)
1991 대한민국불교미술재전 '가작' (조계종 주최)
2008 신라미술대전(조소부문) '입선' (한국미술협회 주최)
2009 제5회 국제종합예술재전 '대상' (한서미술협회 주최)

일체중생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하심과 가피를 입고 살아가며 중생은 그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33관음응신상 조성의 후원을 통해 가내에 큰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709-1692-11 성수진 사무국장
연 락 처 |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소장 김승엽 010-6262-584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봉은사 첫 어린이 영어법회…“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6월 30일 경내 보우당서 100여 명 동참 큰 호응

월 1회 일요일, 초등생 누구나
20년 경력 영어 포교사 지도
어린이 역량 향상 기대 모아



서울 봉은사가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하고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The Buddha waits for us at Lumbini Park~ The Buddha teaches us wisdom and love.”

(“부처님이 룸비니 공원에서 기다리고 계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셨죠.”)

도심 포교의 중심 봉은사에서 초등부 어린이 100여 명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영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30일 경내 보우당에서 첫 어린이 영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영어를 접하고 불교를 통해 정서·사회적 소양을 길러 글로벌 불교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 30분.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법진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입재식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삼귀의,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정성스레 예불을 올렸다.

이어 본격적인 영어 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수업을 맡은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영어 전문가’들이다. 포교사 선생님들은 A부터 Z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불교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어로 사찰 예절 배우기(합장, 삼배)’를 시작으로, 포교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Love’ 팀과 ‘Wisdom’ 팀으로 나눠 팀 대항전을 진행했다. 대항전 종목은 △어린이 불교 방송 ‘Hello! Dharma School’에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기 △영어로 불교 이야기 읽기 △스토리 OX 퀴즈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Miming game’(마이밍 게임)으로 포교사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성했다.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의 열정 넘치는 진행 덕에 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시간은 어느덧 오전 11시 40분. 아이들은 공양게와 사홍서원을 독송한 뒤 첫 어린이 영어 법회를 즐겁게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포교국장 공일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봉은사에서 오늘 어린이 영어 법회가 열린다는 것은 뜻깊은 일”라며 “오늘 법회를 통해 각 어린이의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어린이들이 그동안 불교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며 “주지스님 원력으로 시작된 오늘 법회를 통해, 아이들이 불교영어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까지 (불교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오현수(초림초 4) 어린이는 “평소 법회와 다르게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해서 재밌었다”며 “영어와 불교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녀들과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들 표정 역시 밝았다. 학부모 정인지 씨(41)는 “아이가 이번 영어 법회를 재밌어해서 절에 더 열심히 다니게 될 것 같다”며 “또 부모라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길 바라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어린이 영어 법회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딘 봉은사 어린이 영어 법회는 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재식(삼귀의, 한글반야심경)을 진행한 후, 10시 40분부터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과 영어 법회를 40분간 진행한다. 봉은사 어린이 법회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포교사회국(02-3218-4823)으로 하면 된다.

“이승만 정화유시는 불교 자멸 유도책”

교수불자대회서 마성 스님 주장해
이승만 8차례 유시는 정국 전환용
기독 편향策 펴며 불교 분열 유도
“승단정화, 내부 동력으로 이뤄져야”
7월 2~4일 동국대서 대회 진행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내린 유시들이 “승단의 분열과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교묘한 술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은 7월 2~4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 시사세션에서 발표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유시’를 1955년 12월 8일까지 총 8차례 발표했다.

마성 스님은 “이승만의 유시로 한국불교는 유혈 난투의 전쟁터로 변했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승단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이승만의 행위는 기독교 우위의 종교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승만은 “장차 한국을 완전한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대한민국을 개신교 신앙에 기초해 건국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주창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권 내내 개신교에 대한 특혜가 줄을 이었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은 개신교 인구는 해방 직후 2%에서 10년 만에 10%로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마성 스님은 이승만의 정화유시가 정치적·종교적 목적에 기인하다고 봤다. 스님은 선행 연구를 인용해 “8번의 유시가 공교롭게도 이승만이 정치적 국면 전환을 요구 받는 고비 때나, 1인 독재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필요할 때마다 이뤄졌(하춘생)”으며, 이는 “개헌과 종신 집권에 필요한 이승만 자신의 이미지 구축이라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김경집)”라고 역설했다.

종교적 목적에 대해 스님은 “이승만이 불교계 내부의 분규를 조장한 숨은 의도는 승단을 분열시켜 불교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승만의 정화유시는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교묘한 술책”이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승단분열로 인한 후유증은 종파 난립과 삼보정재 망실, 승단 내 폭력 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게 마성 스님의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성 스님은 범불교적 정부 종교편향 및 훼불 대응기구를 설립할 것과 승단정화는 내부 동력으로 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7월 2~4일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탈종교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문 20편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창건 50주년 성과 조명

대행선연구원, 7월 20일 계절발표회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연 한마음선원 창건 50주년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스피치 전문가인 이현정 대표(이현정 커뮤니케이션)가 ‘사부대중의 불교언어개발을 통한 전법활동’을,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겸임교수)는 ‘한마음선원 50주년 성과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현정 대표는 출가수행자의 설법과 재가자의 포교의 핵심은 언어에 있음을 살피고 시대에 맞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성수 기자는 1972년 5월 대한불교회관으로 출발한 한마음선원의 지난 50년의 성과와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논평자로는 김은영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교수, 김두식 동국대 대우교수 최원섭·오진형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강릉지원 혜인 스님이 강릉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한다. 신중일 기자

제39회 불이상에 이필원 교수·홍성란 포교사

제39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와 홍성란 조계종 국제전법단 포교사가 선정됐다.

불이회(不二會)는 “제39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이필원 교수와 실천분야에 홍성란 포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이필원 교수는 학문적 성과의 대중화를 위해 다수의 저서와 번역서를 발간하는 등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홍성란 포교사는 국제전법단 상임포교사로 북한이탈주민 포교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공적을 각각 인정받았다.


이필원


홍성란

이필원 교수는 청주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일본 유지대(佛教大)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자랑, 이필원 공저)〉이 문화관광부 세종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홍성란 포교사는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포교 및 종교 활동과 정착 상담에 기여했다.

신중일 기자



“대행 선사 ‘뜻으로 푼 천수경’은 마음수행 지침서”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서 청고 스님 논문 발표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선사가 한글로 풀어낸 〈뜻으로 푼 천수경〉은 언뜻 보기에는 독송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수행을 위한 매우 뛰어난 지침서이다.”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마음수행과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6월 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행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고 스님에 따르면 〈천수경〉은 서기 700년 이후부터 한국불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신라 의상대사는 〈천수경〉의 핵심인 ‘대비주다라니(大悲呪陀羅尼)’를 독송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근대적인 형태의 〈천수경〉 독송본은 1716년경이며, 〈천수경〉의 최초 한글본은 1977년 혹은 1978년이 대행 선사에 의해서 출간됐다. “20세기 들어 〈천수경〉에 대한 여러 한글 주석서는 출간됐으나 한글로 번역된 독송용 〈천수경〉이 출간된 적은 없었다”는 게 청고 스님의 설명이다.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의 시각에서 한글 번역이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따라서 〈뜻으로 푼 천수경〉은 언제나 안으로 내면을 주시하게 만들며 ‘선(禪)’의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특징으로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과 모든 문구들이 ‘일인칭 화법’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꼽았다.

실제, 〈뜻으로 푼 천수경〉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우리 마음 속 본래 있는 한마음의 나툼으로 설명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인칭 화법’ 구성에 대해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거의 모든 문구들이 ‘나의’ 혹은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스스로가 인지와 통제의 주체(主體)로서의 자신 즉, 주인의식을 느끼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이는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로부터 발전된 현대의 심리치료 방식과 유사한 자기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현실(psychic reality)’이라는 오래된 심리학적 개념과도 유사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역시 〈천수경〉의 구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렌즈가 될 수 있다”며 “〈천수경〉의 구절들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상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우리의 삶의 최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스님은 “〈뜻으로 푼 천수경〉에서 지옥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설해주는 문구 중 ‘만약에 축생의 마음 일으킨다면, 스스로 큰 지혜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축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대처법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구절들은 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한마음의 전체 자리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향상시켜주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음과학원은 6월 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나’란 일인칭 화법으로 서술
인지행동치료 자기진술 유사
‘베트남 불교’ 전반현황 발표
무아–일심–한마음 연계 조명

현대에 부흥한 베트남 불교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불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도 발표됐다. 호앙 티 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신앙 연구소장은 ‘베트남 불교’ 발제를 통해 베트남 불교 전래와 역사, 현황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호앙 티 란 연구소장에 따르면 베트남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 후 2세기경이며, 11~14세기 베트남 봉건시대에 가장 많이 번성했다. 하지만 17~19세기 가톨릭 도입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거치며 베트남 불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30년부터 베트남 불교는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며, 1981년에는 불교통일대회를 열어 9개 불교단체를 합병했다. 이때 결성된 베트남불교총회는 지금까지 베트남 불교의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다.

현재 불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로 1400만 명의 신자와 5만 3491명의 비구·비구니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종파는 북방불교, 상좌부 불교, 탁발 불교로 나눠져 있다.

베트남 불교계는 사회 실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베트남 승가는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자비 교실과 64개 장애 아동 및 고아 양육시설, 10개의 무료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하이퐁·다낭 등의 불교 사찰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 상담 및 돌봄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다.

호앙 티 란 연구소장은 “재해구호와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베트남 불교 공동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비구·비구니스님들이 방역 최전선에서 봉사했고, 수십만 톤의 음식과 의료품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고위 불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빚어내는 문제와 일부 스님들의 도덕적 품행 저하 문제 등은 현재 베트남 불교가 해결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한마음사상, 무아–일심 잘 드러내”

또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일심이 무아의 부정이 아닌 완성임을 분명히 하고, 일심의 특징을 본유성·전체성·자각성·보편성의 관점서 밝혔다. 나아가 대행 선사가 강조한 한마음사상과도 연결됨을 살폈다.

한자경 교수는 “‘무아’는 일체가 인연 따라 만들어짐을 뜻하고, ‘일심’은 그렇게 인연 따라 일체를 만드는 자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뜻한다”면서 “따라서 일심은 무아의 부정이 아니라 무아의 완성이다. 중생 안의 본래 마음인 일심을 깨닫지 않고는 무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체를 만들되 그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불생불멸의 일심이 바로 모든 중생의 본심이고 여래장이며, 불성이고 본래면목”임을 밝힌 한자경 교수는 “대행 선사는 이런 중생 안의 본성 내지 불성을 ‘한마음’이라고 칭했다”면서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인 것’이라는 대행 선사의 법문 속에서 일심의 보편성을 찾았다.

이에 대해 한자경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이 무아를 완성하는 대승 일심의 본유성과 자각성, 전체성과 보편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표 이후에는 김재영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혜유 스님(독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윤종갑 교수(동아대), 김원명 교수(한국외대)를 토론자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혜유 스님은 토론을 통해 “틱낙한 스님은 참여불교와 인터빙(Interbeing)을 주창하며 불교가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려줬다. 이러한 틱낙한 스님의 활동은 동시대의 한국의 선지식 대행 스님이 연상된다”면서 “틱낙한 스님과 대행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참나의 발견, 내면의 평화와 서로 연결된 한마음의 도리로 세계평화를 이끈 공통점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엄에서 앞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한마음과학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초청으로 혜유 스님과 한마음과학원 관계자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고, 당시 호앙 티 란 교수가 양 기관의 학술 교류를 제안한 것에 따라 이번 초청이 이뤄졌다”면서 “국제교류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이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사업 일환으로, ‘한마음과학의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은 “한마음과학원과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신앙 연구소는 이번 학술교류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다”면서 “2026년이면 한마음과학원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한마음과학의 체계화, 세계화, 생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 대학생들 “템플스테이로 ‘절사친’ 됐어요”

〈절+사람+친구〉

봉은사 ‘대학생도 절로’ 진행
‘친구 사귀기’ 초점 프로그램
6시간 활동… 최종 1쌍 성사
‘귀한 인연’ 시즌2 기대 이어



6월 30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진행된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사진제공=봉은사 기획국

6월 30일 오전 10시, 장마를 재촉하는 빗속에도 서울 봉은사 구생원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준비한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에 참여하기 위한 청춘남녀 20여 명이 모여들은 것.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은 봉은사 대학생법회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대학생 대상 인연 맺기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저출산 시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친구 사귀기’, 즉 ‘절(사찰)에 있는 사람 친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당일형 템플스테이로 만들어졌다.

봉은사 구생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옷을 입고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법’ ‘무아’ ‘바라밀’ 등의 불교 용어로 된 이름표를 각자 달고 사찰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긴장을 풀어갔다.

어색한 분위기는 곧 봉은사 대학생법회 지도법사 명진 스님의 인사말로 해소됐다. 명진 스님은 봉은시그널의 첫 주인공이 된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연기법(인연법)이다. 보통 사람은 인연을 만나면 고민하다 놓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빠르게 받아간다”며 “오늘 친구가 되든, 커플이 되든, 좋은 인연을 맺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1차 미션 ‘돌고 도는 인사’가 시작됐다. 여성은 고정석에 앉아있고 남성이 7분마다 자리를 바꾸며 1:1로 인사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무슨 전공이세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혹시 야구 보세요?”와 같이 서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진심 어린 고민 나눔도 있었다. 첫 미션은 마음에 드는 참가자 이름을 적어 짝꿍을 맺으며 마무리됐다.

1차 미션에서 맺어진 짝꿍들은 2차 미션인 ‘빙고 3줄 완성하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봉은사 북극보전에서 삼배 후 인증샷 찍기, 짝꿍과 함께 초공양 올리는 인증샷 찍기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봉은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봉은사 마스코트인 골든리트리버 ‘천수’와 함께 사진 찍는 활동은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3차 미션은 ‘퀴즈 게임’으로 참가자들은 짝꿍과 함께 불교 상식, 일반 상식 문제를 풀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라며 참가자들은 애써 문제를 맞히려 노력했다. 열띤 토론이 오갔던 퀴즈 시간이 지나고 참가자들은 마침내 최종 선택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의 프로그램에서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커플이 된 자리(남)와 선녀(여)는 “봉은사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추억을 가져간다”고 짧은 소감을 말했다. 명진 스님은 최종 커플이 된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귀한 인연 소중히 여겨 오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절에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안전지대인 사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었다. 시즌2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회를 기대했다.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을 처음 기획한 양서원 봉은사 대학생법회 총무는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던 대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며 “불교가 재미없는 종교가 아닌,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종교임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불갑사 지장보살상·시왕상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7월 3일 지정예고

영광 불갑사 지장보살상·시왕상 등 조선시대 불상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정현(正玄), 해심(海心) 등의 조각승들이 1654년(조선 효종 5) 완성해 불갑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상 등 모두 27구의 존상이 제작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하여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무염의 작풍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해심의 독자적인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며 “무염 및 그의 유파 형성과 전승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海南 隱跡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9세기 대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 불상은 금동불에서 철불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철불상으로 판단된다”면서 “통상, 철불은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조 흔적이 발생하는데, 이 불상은 이러한 주조 흔적을 최소한으로 나타내고자 수직으로 내려오는 옷깃을 따라 틀을 이어 붙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적인 고려가 세심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하루 5분 ‘무시로 명상’으로 감정 다스리길”

〈無時로, 아무때나〉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2강

나의 미래를 내가 알아내는 과학적 방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강의를 진행 중이다. 7월 2일에는 ‘나의 미래를 내가 알아내는 과학적 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가 열렸다. 본지는 2회차 강의를 정리해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 김민재 수습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일 선명상 아카데미 제2강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괴로움이란 감정 즐거움서 비롯돼
苦樂은 윤회…부자도 苦 못 벗어나
윤회 못 끊으면 모든 것은 ‘껍데기’
고락 끊어 평안 이른 게 ‘견성성불’
간화선 어렵다면 日5분만 선명상을

부처님은 행복하려 출가하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감정, 생각, 인식을 통틀어 ‘마음’이라 한다. 그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정이라 생각한다. 경전과 논서에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원래 불교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생긴 종교다.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인간의 고통과 그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는 사성제를 말한다. 고통, 집착, 이를 없애는 것, 이에 이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 중 고통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무엇일까? 바로 감정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이 곧 괴로움이다. 그걸 통틀어서 괴로움이라 한다.

내가 왜 괴로운지 알아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알 것이다. 기분 나쁘면 겨우 한다는 게 참거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모두 일시적이다. 이런 방법으로 괴로움이란 감정 자체를 완전히 없애진 못한다.

부처님은 행복하고, 즐겁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출가 이전 비록 소국이었지만 가필라국의 왕자셨다. 보통 사람이 갖출 수 없는 것들을 모두 갖췄지만 출가했다.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재산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이큐가 높다 등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일시적이다. 금생에 마음을 닦지 않으면 전생의 복은 그 생에 끝난다. 아무 노력이나 이유 없이, 그저 부모를 잘 만났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복권이 붙는다던가, 주식이 ‘떡상’하든지 갑자기 부자 된 소위 ‘졸부’들도 있다. 원래 집안이 좋아 대대로 물려받은 사람도 있다.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금수저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조건이 완벽하지만, 우울증에 걸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흙수저도 인생을 비관만 하지 않고 소욕지족 하면서 자기 분수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 훨씬 많다. 대개 돈이 많으면, 부자면,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많다고 괴로움이 없겠다고 고정관념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苦樂의 본질을 알아야

괴로움을 풀려면 고(苦)와 락(樂)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내 앞길을 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의 본질을 계속 얘기한다. 감정을 명확히 알아야 나머지 문제도 풀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도 계속 윤회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의 질량과 낙의 질량은 0.1g, 0.1㎜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다만 행복하고 즐겁게 나타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대가로 나타나는 괴로움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1초 안에도, 1시간에도, 하루 안에도, 1년 안에도, 10년, 죽을 때까지, 고락이 즉 육도가 윤회한다. 전생, 금생, 내생까지 고락이 출렁거린다. 지금 좋다고 해서 그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즐거운 만큼의 고통스러운 대가가 반드시 생긴다.

서옹 스님이 늘 말하던 〈임제록〉의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보통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 윤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중도의 마음 상태가 되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진다. 그게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 싫다고 느끼면 바로 과보가 생겨버린다. 즐거움이 생기면 똑같은 질량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 되면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썬 그 과보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순 없다. 내가 지금 행복한 감정을 느꼈으면 즉시 괴로움이 생긴다. 유식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속에 저장이 된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다. 고락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듯이 고락은 계속 반복되고 이를 윤회라고 부른다. 현상은 현상일 뿐,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괴로움은 여전히 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결국 모두 생로병사, 성주괴공이다. 문제는 ‘나’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당연히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 감정이 생기면 저 감정이 생긴다. 하지만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 그처럼 기분 좋은, 행복한 것이 생기는 때가 있으면 그 괴로움의 과보가 바로 나타나거나, 내생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 전생의 것이 현생에, 현생의 것은 내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라고 한다. 계산할 때 구구단을 외워두면 산수를 할 수 있다. 고락, 감정의 본질과 원인을 알아야 내가 지금 왜 화를, 기분이 나쁜지, 기쁜지 등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괴로움의 감정은 즐거운 감정 때문에 생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고락의 순환 고리, 윤회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아 봤자, 모두 이름뿐이다. 결국 괴로울 때 괴로울 것이다.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제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것은 모두 껍데기다. 그러니 여기 있는 스님들은 천재들이다. 이를 알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고락은 서로 의지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질량의 경우 즐거움의 질량과 괴로움의 질량은 똑같다. 다만 고락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즐거움도 크고 괴로움도 큰 사람이 있다. 점잖고 나이가 있는 사람은 기분에 잘 휘둘리지 않는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락의 업이 ‘제로’다.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졌다. 고가 사라지니 즐거움도 사라진다. 이를 ‘해탈’, ‘중도’, ‘견성성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라고 표현한다. 즉 고락의 순환 고리를 끊었다는 의미다.

覺者에겐 고락의 업종자가 없다

‘고락’이라는 ‘인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 중도심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에 성공하거나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재차 말하지만 껍데기다. 잠시 전생의 복으로 조건이 좋아진 것일 뿐이다.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도심(中道心)’이다.

고락, 감정의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달라진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종자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되서 괴롭다고 하면, 그 일은 현상이다. 무수한 과거부터 연결된 모든 삼라만상이 모여 결과가 된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는 다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목적이 이뤄지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면, 현상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고 믿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종자가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이나 마음을 깨친 조사, 보살, 아라한들은 고락의 업종자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종자가 없으니 기분 나쁜 일이 없다. 이분들은 유혹되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다. 내가 눈곱만큼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안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이 없다.

간화선이 이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간단하지만 근기가 약한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선명상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행복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분 나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위해서 거듭 선명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진우 스님은 ‘무시로(無時로, 아무 때나) 명상’을 대중에 제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명상을 하루에 5분 이상 해봐라. 나는 이를 ‘무시로 명상’이라고 명명했다. 아무 때나 선명상을 적어도 하루 5분 이상 하고 점차 늘리면 더 좋다. 잡념이 들면 드는 대로 가만히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훈련을 해보시길 바란다. 자기감정 상태가 어떤지 고요히 살펴보면 스스로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다.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살펴보라. 그것이 능숙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불이나 화두를 수행할 수 있다.

진우 스님이 전하는 ‘무시로 명상’ Tip4

1. 우선, 숨을 고르게 해야 한다. 왜냐면 마음이 복잡하면 숨이 거칠어지거나 불규칙해진다. 숨을 고르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라.
2. 눈은 한 곳을 응시하거나 감아도 된다. 움직임은 최소화해라. 천천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3. 자세는 바로 해야 한다. 좌선이 가장 좋기는 하나, 서서 해서도 된다. 하지만 설려면 똑바로 서고, 앉으려면 똑바로 앉아야 한다.
4.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일어났을 때 5분 동안 실천하라. 5분을 조금씩 늘려가서 50분까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 할인 | 승복, 가방 50% 가구, 병풍 30%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원백	20개	80,000원
홈초돈타래	40개	80,000원

파라핀	1BOX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관음정진 100만독으로 생활불교 구현을”

부산 삼광사, 100만독 입재법회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100여 일 관음정진 기도 수행해
수행 동참자 회향일 이수증 수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관음정진 백만독 봉행기’에 삼광사 번을 달아주는 모습.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하는 관음정진 백만독 정진을 시작했다.

삼광사는 7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은 현재 2대 종정을 역임하고 종단 중흥에 앞장 선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관음정진을 이끌고 있다. 삼광사는 천태종의 관음정진 불사에 동참하며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관음정진 100만독 결사 회향은 11월 1일이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입재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봉행사 △입정 △법문 △백만독 봉행 번 수여 △축사 △축가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관음정진 백만독이 생활불교로 이끌어 주는 방법이 될 것이며 욕망을 여의는 해방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줄 것”이라며 “수행정진을 통해 바르고 밝은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회향의 불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수 스님은 법문 이후 ‘관음정진 백만독 봉행기’에 삼광사 번을 달아주고 “수행정진 합시다”고 외친 후 주지 영제 스님에게 봉행기를 전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연화세계’라는 대조사의 말씀과 대충 대종사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될 때 한마음이 청정해지고,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의 연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며 “백만독 불사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무량한 자비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동안 열심히 정진해 자아완성은 물론, 세계인류 평화 발원, 국운융창 기원,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100만독’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봉행해온 정진이다. 대충 대종사의 탄신일 100주년이 2년 뒤인 2026년 1월 23일이며 이에 앞서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대충 대종사는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천태종 2대 종정이며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1945년에 출가했다. 제2대 종정으로 천태종 중흥과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섰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관음정진 100만독 동참 불자들은 매일 관음정진 수행 기도하며 100여 일 동안 수행을 이어간다. 100만 독을 완독한 불자들에게는 이수증을 수여받는다.

경봉문도회, 경봉 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서
경봉장학회 2700만원 전달


경봉문도회는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2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를 봉행했다.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스님)는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2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를 봉행했다.

경봉문도회는 매년 경봉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인재 불사 유지를 잇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해 장학금은 박사과정 동국대 3명, 중앙승가대 2명, 신경주대 1명과 석사과정 동국대 4명, 중앙승가대 2명, 학사과정 동국대 3명 등 총 15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이어 통도사 승가대학 400만 원과 내외전 학인스님들에게 총 1900만 원을 전달해 수행 정진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 800만원을 지원해 포함해 총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추모다례재에서는 경봉문도회에서 발간한 책 ‘신금강내원사시선’과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 사바를 무대 삼아 멋지게 살아라’를 불전에 올리고 기념했다. ‘신금강내원사시선’은 ‘소금강’으로 불린 양산 천성산의 절경과 당대 선사와 유학자가 읊은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 책이다.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 사바를 무대 삼아 멋지게 살아라’는 경봉 스님이 쉽게 풀이한 법문집이다.

추모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대종사, 회장 원산 대종사,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주지 현덕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스님과 전 통도사 노전 지학 스님이 집전했으며 △상단불공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및 헌향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씀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도들은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실천하고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도록 노력을 다해 수행 할 것”이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템플스테이 성료

6월 29일~30일 고운사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회장 김은정)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6교구본사 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부산 대불련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했다.

부산 대불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세간해연구소에서 제공했으며, ‘만남의 장’, ‘스님의 꽃디지트’, ‘화엄놀이카드(스님과의 차담)’, ‘명상 와선’, ‘새벽예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대학생들이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명상을 체험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마음의 힘이 곧 행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위해 봉사해 주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참가자 모두를 대신해 스님들과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체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천태종 광명사 우란분절 입재

6월 30일, 경내 지관전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6월 30일 지관전에서 우란분절(백중) 입재를 봉행했다.〈사진〉

입재법회는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덕준 스님, 현오 스님이 법사로 동참했으며 신중작법, 일백사위, 시련, 대령, 관욕, 사성례, 천수경 독송, 천수바라, 도량계, 지장청, 화청, 축원, 상단법문과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 우란분절 천도 입재에는 약 4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염불하고 위패가 모셔진 영가단에 절을 올렸고,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간절히 염원했다. 광명사 우란분절 초재는 7월 14일, 중재는 8월 4일, 회향은 8월 18일이다.

주지 춘광 스님은 입재 상단법문을 통해 “영가님들 다겁생에 지은 모든 업장 번뇌 다 내려놓으시고 무량한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길 바란다”며 “본래의 나는 생사가 없는 청정법신임을 기억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탐진치로 지은 업장번뇌를 빨리 내려놓고 소멸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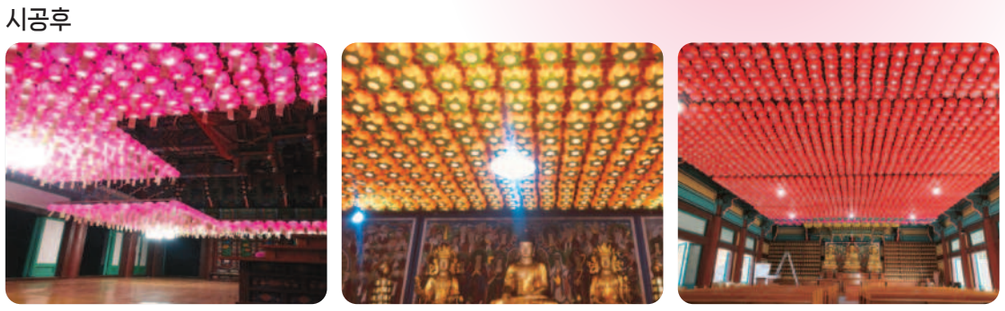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학생·지도법사, 대학생 전법에 머리 맞대다

조계종 포교원 · 대불련, 대학생 전법간담회

6월 29~30일 양일간 마곡사 등서
대학생 · 지도법사 전법 방안 모색
불법메이트 · 전법토크쇼 등 진행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가령 수습기자


전법간담회에서는 지도법사 스님 1명과 대학생 5~6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자 대학생과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생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6월 29~30일 양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에서 '스님 불교 재미있나요'를 주제로 '2024 대학생 전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법간담회에는 시현 스님(성신여대), 동진 스님(동국대), 지단 스님(고려대), 우경 스님(전북대), 대원 스님(국민대), 선행 스님(공주교대) 등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과 국민대, 고려대, 동국대 등 15개 대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함께했다.

입재식에서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 스님은 "지도법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기 때문에 항상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간담회에서 나누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대학생 법우들이 부처님 법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서로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며 알아가는 시간"이라며 "간담회에서 보다 행복한 불교동아리를 만들어갈 바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법간담회에서는 지도법사 스님 1명과 대학생 5~6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인사하는 '불(佛)법메이트',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전법토크쇼: 불(佛)쏘시게', 불교동아리의 1년 활동을 만드는 '전법 팀플' 등을 통해 서로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며 대학생 포교와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을 초청한 특강도 열렸다. 특강에서 참여자들은 이 소장과 조계종 포교원이 함께 연구·개발한 에니어그램 기반 성격 유형 테스트 '불교 에니어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불교 에니어그램을 포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MBTI와 유사한 성격 유형 테스트로, 나에게 맞는 신행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오늘 간담회는 불교동아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타학교 학생들, 지도법사 스님들과 다양한 신행 활동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주연 창원대 학생은 "지도법사 스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었다"며 "앞으로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법사 스님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국민대 지도법사 우경 스님은 "학생 법우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가슴 뛰고 좋았다"며 "다음 간담회에는 더 많은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참여해 불교 전법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지정서 전달식

6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서 봉행
보물 지정 21년 만에 국보 승격



국보지정서 전달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6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국보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명창환 전남부지사, 유현호 순천시부시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무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송광사에는 이번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으로 5건의 국보와 보물 28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송광사의 성보유산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 모두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선대 스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 지금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 성보들을 간직하고 이어갈 스님들과 사부대중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송광사 영산회상도, 팔상도는 2003년 보물로 지정돼 2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수작이다"며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후 국보를 지정하게 돼 더욱 축하한다"고 밝혔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된 후, 2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이 작품 중 팔상도 4폭(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수하항마상, 쌍림열반상)은 올해 호암미술관의 특별전시에도 출품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산 보원사지 복원하는 AI 경진대회 열린다

청소년 대상, 8월 12~16일 접수
메타버스 온라인 교육도 제공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충남 서산 보원사지를 복원하는 청소년 경진대회가 열린다.

보원사는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024년 보원사지 AI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보원사지 가상현실 문화유산 프로젝트'인 이번 경진대회는 복원사지 복원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라진 보원사의 과거 신행공간을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자기 주도적인 사찰의 이해를 중심으로 매타버스 공간에 맵을 구축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문화유산과 메타버스를 융합한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작품 접수는 8월 12~16일이며 8월 17~20일 심사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30만원, 장려상 5명에게 20만원이 수여된다.

보원사는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위해 '메타버스 온라인 수업'도 제공한다. 7월 11일 오후 7시부터 보원사 활동 내용 소개 및 보원사지 역사와 건축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7월 12일에는 인공지능 활용과 보원사지 메타버스 맵의 이해,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등의 교육이 제공된다. 7월 18~19일에는 메타버스 제작 실습과 오브젝트가 8월 8~9일에는 경진대회 작품 멘토링 및 출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수상발표는 8월 23일 보원사 홈페이지(www.bowonsa.kr)에서 확인가능하다. 9월 7일부터 수상작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시상식은 10월 12일 열린다.

한편 보원사는 2021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보원사지 복원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로블록스, 2023년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를 이용한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010-5106-0107 임은호 기자

금산사 대적광전 5여래 6보살상 개금불사

6월 29일, 점안법회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대적광전 5여래 6보살상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6월 2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증명법사로 불교 전통 점안의식으로 진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오늘 개금불사 점안식은 전 주지 일원 스님의 원력에 의해 이뤄졌다"며 "불사를 이뤄낸 일원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주지 화평 스님은 "지난 산중총회에서 전북에 불교방송 개국, 불교요양원 건립, 소통하는 금산사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은사이신 월주 스님을 오래 시봉하면서 애종심과 공심, 보살행을 실천해야 함을 배웠다. 배운 것과 그간의 복지 실천 경험을 살려 금산사와 교구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삼불암, 호국영령 위령 영산대재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영산대재가 마련됐다.

익산 삼불암(회주 심월 스님,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 전사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1회 삼불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익산 삼불암은 20여 년 전부터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지내오다 올해부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됐다.

삼불암 회주 심월 스님은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은 사사로움이 없는 영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영혼과 함께하며 윤택하고 싸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명승' 지정

국가유산청 6월 29일 지정 고시
김제시 "방재시스템 구축할 것"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사진〉이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 이후 명승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당시 문화재위원회)가 6월 20일 김제 망해사 일원을 국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망해사는 올해 3월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 됐으나 4월 불의의 화마로 대웅전이 소실된 바 있다.

김제시는 올해 5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경관적·생태·학술적 가치가 보존됨에 따라 명승으로서 주요 가치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음악회

등재 6주년 기념해 열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6월 29일 경내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6주년을 기념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속에서도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본·말사 스님들, 최원철 공주시장, 정수용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안병권 제6교구 신도회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원경 스님은 "문화유산 등재일에 맞추다 보니 마침 장마 시작일과 겹쳤다"며 "내년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날에 더 좋은 음악회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자랑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고승대덕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안성 법계사, 헌혈로 이웃민과 인연 맺어

6월 30일 헌혈 행사 진행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는 안성 스리랑카 이주민 단체인 안성 유나이티드(회장 다린다)와 함께 6월 30일 '가장 귀한 것을 나누다! 헌혈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이주민 70명이 동참해 헌혈했다.

주지 도윤 스님은 "마음을 내서 진행한 행사에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귀한 헌혈 행렬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다린다 안성 유나이티드 회장은 "연 1회 정기적인 헌혈 보시 행사를 열어, 부처님 말씀대로 나누고 동참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안 쌍봉사,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관내 차상위계층 150가구에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가 장마철과 혹서기를 앞두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 29일, 쌍봉사 밑반찬 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 자원봉사자들은 쌍봉사 만복소당에서 열무 얼갈이 물김치 등을 담아 포장했다.〈사진〉

정성으로 만들어진 반찬은 진안지역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80세 이상 어르신 등 지역주민 150가구에 전달됐다. 보경 스님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반찬을 만들어 준 봉사자들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황룡사, '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산사음악회

6월 30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영동 황룡사(주지 종림 스님)가 6월 3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2025년 개최되는 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황룡사 주지 종림 스님과 혜정 스님(고당사 주지), 명원 스님(반야사 주지), 원우 스님(원우사 주지), 정영철 영동군수, 이승주 영동군의장, 정영옥 영동군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림 스님은 "영동 불교계는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템플스테이 시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계기로 영동의 국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新발견' 말레이시아 고대 불교 유적 '화제'

밀림 속 유적군서 불교사원 발견
8~9세기 경 구성된 것으로 유추
거의 완전한 상태 소조불상 발굴
"발굴 사원 중에 가장 큰 규모"

박영빈 객원기자


유적지에서 발견된 등신대의 소조여래상. 사진출처=더 썬

말레이시아 밀림 속의 고대 유적군에서 불교 사원유적과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돼 화제다. 특히 거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된 등신대의 소조불상이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6월 29일 '말레이 메일' '아시아 뉴스' '더 썬' 등의 외신은 새롭게 발굴된 고대 불교유산들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세계고고학연구센터(PPAG)의 나샤 콰(Nasha Khaw) 박사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의 발굴연구팀은 최근 말레이시아 북서부 케다주에 소재한 부킷 초라스(Bukit Choras) 유적군에서 지금껏 발굴한 사원 유적 가운데 가장 큰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 내부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은 소조불상을 발굴했다.

부킷 초라스 유적군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발굴이 시작된 고대 유적군으로 8~9세기경에 만들어진 불교사원과 마을 유적군이다. 현재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된 유적들에선 이미 많은 불교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거의 완전한 상태의 등신대 소조불상이 발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발굴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굴조사에서 조사한 곳은 부킷 초라스 유적군에서 발굴한 불교사원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라고 말했다. 발굴팀은 "불상은 사원 북쪽 벽에서 발견됐으며 석회, 물, 모래를 섞은 회반죽의 일종인 스투코(stucco)로 조성됐다"면서 "편단우견의 가사를 입고 결가부좌를 했으며, 선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의 여래상이다. 상호표현, 가사의 주름과 묘사, 수인 등 도상적 특징이 뚜렷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한 불상 근처에서 "돌에 새겨진 산스크리트어 명문과 토기 파편도 발견됐다"면서 "특히 산스크리트어는 연기법에 대한 짧은 게송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대 불상과 불탑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발굴팀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머리 부분이 소실된 2구의 불상을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사무총장 다툭 압둘 라흐만은 "이번 발굴의 시대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훨씬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인도네시아의 유물은 9세기, 캄보디아의 유물은 12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서기 7~8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툭 사무총장은 "이 발견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차이나와 말레이 군도의 문명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서 "특히 외부 세계와의 종교적, 문화적, 예술적, 기술적 연결과 교류가 일찍부터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립 문화유산부와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은 발굴된 유물들을 대학 연구실로 임시 이동했으며 보존처리 작업과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팀과 대학 측은 추가적인 발견이나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유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굴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원의 북쪽과 서쪽 벽의 구조적 요소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킷 초라스 사원의 주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 미국서 무릎 수술 후 회복 中

6월 28일, 뉴욕서…다음날 퇴원
주치의 "수술 성공적…곧 완쾌"


지난 23일 뉴욕에 도착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무릎 치료를 위해 방미한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지난 6월 28일 뉴욕의 병원에서 성공적인 무릎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0일, '자유 아시아 방송'은 병원 측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근황을 전했다.

뉴욕 특수외과 병원의 성인 관절 재건 및 치환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J. 메이먼 박사는 "달라이라마의 수술은 성공적"이라며 "곧 완쾌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29일 토요일 아침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메이먼 박사는 "달라이라마의 주치의팀과 사무국은 당원의 외과 및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우리에게 신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음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6월 23일 뉴욕에 도착했고,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체텐 D. 사뒤창 박사와 사무국 비서 텐진 탁라는 28일 수술 직후 달라이라마 공식 유튜브와 SNS 계정을 통해 "달라이라마 존자의 무릎 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수술은 28일 오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현재 모든 신체적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달라이라마는 퇴원 후 현재 숙소인 뉴욕 맨해튼의 호텔로 돌아갔다. 미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과 지지자들은 병원과 호텔 밖에 모여 꽃과 향 등을 들고 달라이라마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호텔 앞에서 달라이라마를 환영한 티베트인 체미 유돈은 "존자님의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면서 "티베트인으로서 이렇게 멀리서라도 뵐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 체제 기간이나 공개적인 대중행사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한 소식통은 "나이와 수술 후 최소한의 재활을 생각했을 때 8월 중순까진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승 총격' 뿔난 미얀마 불교계, 정권 보이콧

만달레이 승려 협회 중심 정권 보이콧 확산



미얀마 정부의 고위 승려 총격 이후 불교도들의 분노가 거세지며 '정권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이와라디닷컴

미얀마 정부가 고위 승려 살해 사건 이후 '불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교도들의 분노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 승려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만달레이 승려 협회를 중심으로 '정권 보이콧' 움직임까지 발생됐다.

지난달 6월 24일 미얀마의 온라인 매체 '이라와디닷컴'(irrawaddy)에 따르면 최근 만달레이 승려 협회가 정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후 데파인, 살링이, 타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만달레이에서 불교계 원로 승려 바단타 무닌다비완사(78)가 총격을 당해 입적했다. 그는 남부 바고시(市) 유명 대형 불교 사찰인 '윈 네인미타욘' 주지이자 미얀마 불교계 최고 의사결정 기구 '상가 마하 나야카 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얀마 불교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미얀마 군부는 당초 저항군인 시민방위군(PDF)의 지뢰 테러로 무닌다비완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총격 사건 당시 현장에서 탈출한 다른 승려가 SNS에 "군부가 공격했다"고 폭로하면서 급반전을 맞았다.

이후 여론이 들끓자 군부는 "군부 측 공격으로 승려가 숨졌다"고 공개 사과했다. 군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은 2021년 2월 쿠데타 발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인구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승려들은 각종 정부 행사 및 기조에 반할 것을 공식 천명했고, 전국의 다른 승려들과 불자들에게 자신들의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차웅우 마을의 쉐와랑 사야도 우 자나야 스님은 "우리는 용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서 말했다.

미얀마 불교계의 정권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과 1990년, 2007년에도 불교도들의 정권 보이콧 선언이 있었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엔 정부의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이른바 '샤프란 혁명'에 참여한 스님들을 기둥에 묶어 폭행한 일이 발단이 됐다.

한편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은 5300명이 넘는다. 박정현 객원기자

'맨발의 순례자' 언급 누리꾼에 벌금 '논란'

베트남 정부, 레안투 언급에
게시물 44건 이유로 300달러


'맨발의 순례자' 레안투. 사진출처=RFA

베트남 정부가 SNS에서 '맨발의 순례자'로 유명한 레 안 투(Le Anh Tu)를 언급한 누리꾼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다. 지난 6월 26일 RFA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닉네임 'T.D.T.'를 사용하는 누리꾼에게 벌금 약 300달러를 부과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의 순례 관련 영상과 소식을 공유했다. 베트남 국영언론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투와 관련해 44개의 뉴스와 기사를 공유했다. 국영언론은 이를 두고 "당국의 위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투는 여론을 이용해 정부에서 공인한 베트남 불교 승단을 모욕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투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만을 들고 2017년부터 베트남 전역을 순례 중이다. 이후 몇몇의 유튜버들이 이러한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사람들은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그를 비교하며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열광했다. 그러나 당국은 투가 정식 승단에 속하지 않는 비공식 승려라는 이유로 지난달 초 돌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강제 구금시켰다. 박정현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 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0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7일
8월 27일 출발~9월 2일 도착(7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300여 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내던 시기에 조성된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462개의 커다란 벽면에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동참금 | 26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28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8일
영혼의 고향이라는 티베트,
그곳에서 불교의 깊이와 신심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일 : 8월 20일~27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5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올 여름, 템플스테이로 알찬 휴가를 보내볼까

문화사업단,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전국 40여 사찰서 43개 프로그램
어린이 · 가족 · 명상 등 4개 유형
계층 맞춤 구성으로 힐링 선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무더운 여름. 올해 휴가만큼은 자연과 전통사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어떨까. 아이들에겐 특별한 여름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선사할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여름을 맞아 7~8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특별 체험형 ▲어린이 캠프형 ▲가족 체험형 ▲명상 집중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전국 40여 사찰에서 지역 및 사찰별 특색이 담긴 43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가족·어린이·친구·연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계층 맞춤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특별 체험형 프로그램'은 이색적인 템플스테이를 경험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하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남 쌍계사에서 진행되는 '하동 전통차 티클래스'가 바로 그것이다. 차의 본고장 하동에서 차의 온도와 제다 방법에 따라 변하는 차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구례 화엄사의 '자연 속 도파민 디톡스-한번! 해볼까?'(7월 31일~8월 2일, 8월 14~16일)도 눈길을 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분리하고 숲길 포행으로 자극을 줄여 뇌의 평안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서핑체험, 파도명상, 계곡 트레킹 명상 등 지역 명소와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캠프형 프로그램'도 있다. 부산 홍법사는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템플오면 뭐하니?'를 진행한다. 6박 7일 동안 아이들은 사찰음식 체험부터 뇌크레이션, 어린이 스피치, 싱잉볼 명상, 어린이 108배 등을 경험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된다. 7월 27~28일 경기 법륜사가 운영하는 '부처님과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에서도 더위를 식혀줄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가 준비됐다.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남 백양사의 '백양사 친환경 템플스테이-비자림'이 주목할 만하다.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108배, 선명상 등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제공한다.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에서도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제철 재료 사찰음식 배우기, 북미륵암 산행 등을 준비 중이다.

'명상 집중형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강원 월정사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명상 요가 템플스테이'를 연다. 소리명상, 숲명상, 요가명상 등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 대구 동화사, 완도 신흥사, 공주 갑사, 용인 법륜사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는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참여할 수 있다.



■ 특별체험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경기	수원사(수원)	지금 행복하기 (★)	새벽참선, 스님과의 차담, 걷기 명상	7.18 ~ 8.18
강원	낙산사(강원)	서핑 템플스테이 (★)	소리명상, 파도명상, 요가형 108배, 서핑체험	7.17 ~ 8.25 (수~금, 금~일)
	삼화사(동해)	무릉계곡 명상 템플스테이 (★)	백두대간 무릉계곡 트레킹 명상	8.16 ~ 8.18
	보현사(강릉)	여름이랑 자연이랑 나만의 세계로	부채색칠명상, 문화유산스템프투어, 범종치기	7월 ~ 8월
	용연사(강릉)	솔바람 사찰캠프 (★) (초등학생 무료)	용연계곡 명상, 별빛명상, 만다라 그리기	7.17 ~ 8.18
충북	석종사(충주)	충주 여름호수(충주호)에서 여름나기 (★)	충주호 명상, 유람선 · 동굴 체험(비용 별도)	7.9 ~ 7.11
전남	화엄사(구례)	한 번! 해볼까? 자연속 도파민 디톡스 (★)	휴대폰 반납, 스님과 숲길 포행, 차담	7.31 ~ 8.2 / 8.14 ~ 8.16
	화암사(고성)	전설따라 찾아가는 사찰순례	대표사찰 순례, 신선대 등반, 108배염주꿰기	7.20 ~ 9.30
	연곡사(구례)	힐링 건강 세미나 템플스테이	건강 관련 강의, 지리산 계곡 · 국보길 순례	7.12 ~14 / 8.16 ~ 8.18
	연곡사(구례)	지리산 피아골 순례길 걸으며 자연을 느끼기	피아골 계곡 탐방, 순례길 걷기, 스님과 차담	7.18 ~ 8.10 (목~토)
전북	내소사(부안)	몸과 마음 '소생'	맨발자비명상, 전나무숲길걷기, 반딧불이보기	8.9 ~ 8.11 / 8.16 ~ 8.18 / 8.23 ~ 8.25
경남	쌍계사(하동)	하동 전통차 티클래스	전통차 맛보기 체험, 차와 명상	7.1 ~ 8.31 (화~일)
	대원사(산청)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호흡명상, 계곡물놀이, 스님과의 대화	7.1 ~ 8.31
경북	용문사(예천)	조용한 산사에서 사찰음식 만들기 (★)	사찰 음식 체험 (1박 2일 동안 2회 진행)	7.6 ~ 8.17 (토~일)
	심원사(성주)	하하호호 (★)	캘리그래피 부채만들기, 별휴식명상	7.20 ~ 8.31
	감산사(경주)	무더운 여름날, 생각 흘려보내기	소나무 숲에 누워있기, 호미길 포행 명상	7.6 ~ 9.1
	봉정사(안동)	2024년 경상북도 지역 연계 대학생 전법 특별 할인 템플스테이	타종 체험, 스님과의 아침 명상 및 차담	7월~8월

■ 어린이 캠프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경기	용주사(화성)	전통한복 효서당 용주사 템플스테이 (★)	한복배례입기 명상 도인호흡, 범종체험서당	7.28 ~ 7.29
	법륜사(용인)	'부처님과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린이 수련회 (★)	물놀이, 레크레이션, 명상	7.27 ~ 7.28
세종	영평사(장군)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 (★)	물놀이, 민화 액자 · 연꽃등 만들기	7.19 ~ 7.21
충남	마곡사(공주)	2024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	108염주 만들기, 물놀이, 목장에서 피자 만들기	7.26 ~ 7.28
전남	백양사(장성)	백양사 어린이 명상캠프 '연꽃아이' (★)	숲속 작은 음악회, 곤충일지, 풀장 물놀이	8.2 ~ 8.4
전북	금산사(김제)	(엄마만 쉬냐?) 나도 쉬고 싶다 (★)	국악교실, 전통한지등 만들기, 물놀이	7.27 ~ 7.29 / 8.2 ~ 8.4
광주	무각사(서구)	절친 템플 스쿨 (★)	물놀이, 숲속공원 걷기명상, 다도 체험	7.20 ~ 7.21 (초등) 8.3 ~ 8.4 (중고등)
경남	대원사(산청)	방학특집 어린이 템플스테이 (★)	계곡 물놀이, 다도 체험, 염주만들기	8.21 ~ 8.23
경북	직지사(김천)	직지사 어린이 여름 캠프 (★)	물놀이, 만다라 그리기, 명상	8.2 ~ 8.4
부산	홍법사(금정)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템플오면 뭐하니?(★)	뇌크레이션&어린이 스피치, 천연염색 체험	8.4 ~ 8.10

■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전남	백양사(장성)	백양사 친환경템플스테이 '비자림' (★)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선명상	7.27 ~ 7.28
	무위사(강진)	가족 템플 스테이 (★)	사찰음식 배우기, 사찰음식 정찬 체험	7.20 ~ 7.21
	대흥사(해남)	여름가족 특별템플스테이 (★)	요가명상, 북미륵암 산행, 스님과 차담	7.31 ~ 8.1 / 8.8 ~ 8.9 / 8.14 ~ 8.15

■ 명상집중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서울	천축사(도봉)	무문관 수행, 화두참선	무문관 독방 수행, 스님 수행 지도, 차담	7.1 ~ 8.31
	국제선센터(양천)	내 삶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명상	선명상, 법구경 캘리그라피, 차담	7.17 ~ 7.19
경기	법륜사(용인)	'선명상' 템플스테이	절명상, 선명상, 차명상	7.5 ~ 7.7 / 8.2 ~ 8.4
	대원사(가평)	차오름 (마음의 알아차림)	소리 명상, 해돋이 명상, 걷기 명상	7.23 ~ 7.24 / 8.6 ~ 8.7
강원	월정사(평창)	선명상 요가 템플스테이	소리명상, 숲명상, 요가명상, 암자순례	8.15 ~ 8.18
충남	마곡사(공주)	군왕대 기(氣) 멍: 왕의 기운을 받아라!	백범 김구 명상길 걷기	7.6 / 7.20
	갑사(공주)	요가 선명상 템플스테이	구곡 트레킹, 삼신불 부채그리기, 한지공예	7.26 ~ 7.28 / 8.2 ~ 8.4
전남	미황사(해남)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네 마음	너덜바위 명상, 미황사 자하루 참선	7.26 ~ 7.28
	향일암(여수)	명승지에서의 일출 명상	명승지 · 전각 일출 감상, 별 감상	7.1 ~ 8.31
	신흥사(완도)	바다치유명상 템플스테이 (★)	선명상, 포행명상, 완도특산품 증정	7.20 ~ 8.20
경북	축서사(봉화)	축서사 백두대간 명상체험(비움,쉼 그리고 침묵)	백두대간명상, 수목원 탐방, 탑돌이 행선	8.1 ~ 8.3
	장육사(영덕)	물 같이 바람 같이	범종 명상, 그리기 명상, 일출 명상	7.26 ~ 7.28 / 8.9 ~ 8.11
대구	동화사(동구)	'一心'我!('일심'아!) 선명상 템플스테이	좌선명상, 수행일기, 태극선무도, 자자	7.12 ~ 7.14 / 8.2 ~ 8.4

*일정 및 프로그램은 각 사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사찰에 문의 바랍니다.
*'★'는 초등학생 참여 가능 프로그램입니다. 학년 별 참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각 사찰에 문의 바랍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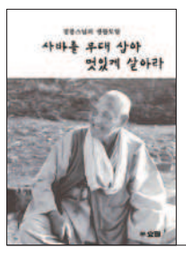
7/3~7/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원빈스님의금강경에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4	석가와 예수는 백인인가?: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감성의 종교 철학에세이	이원익	운주사	9	아비담마 길라잡이(1)*전정판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5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개정판)	월폴라라훌라/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 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선지식이 전하는 이야기 생활법문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원광 경봉 대선사 지음
김현준 엮음
효림출판사/8000원

경봉 선사 법문, 유발상좌가 엮어
"사바세계 문제는 결국 三毒 때문"
67가지 이야기 속에 깨달음 담겨



경봉 선사는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통도사 성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세에 해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전국 유명 선원에서 수행하다가, 1927년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활연히 대오하였다. 이후 통도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1953년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된 이후 열반의 그날까지 30년을 극락암에 주석하시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82년에 원적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원광 경봉 선사(1892~1982)는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중 한 명이다. 경봉 스님은 최고의 도인(道人)으로 추앙받았지만, 스님의 법문은 고담준론이 아니었다. 늘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편안한 언어로 쉽게 법문을 해줬다고 한다.

경봉 스님의 유발상좌로, 평생을 불교 수행과 포교와 연구에 몰두한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스님의 법문을 엮은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를 펴냈다.

김현준 원장은 경봉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법문들을 최대한 모아 책으로 엮어 내겠다는 원을 세웠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다. 이를 위해 김현준 원장은 지난해부터 월간 〈법공양〉에 연재를 진행했고, 미연재분 20개 이야기 더해 책을 출간했다.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에 담긴 이야기 법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얼굴이 평온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나는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등을 탁 치면서 꾸짖는다.

"무엇 때문에 수심·근심 보따리를 가슴에 잔뜩 안고 다니느냐! 그 근심 걱정 보따리가 다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신경질이 많은 데서 생긴 것이다. 고쳐라! 고무줄이나 용수철은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오므라든다. 이것처럼 사람도 신축성이 있어야 세상을 살면서 상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버스에 쿠션이 없으면 엉덩이가 어찌 안 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예'하면서 반성을 한다.

– '급한 성질과 고집과 신경질' 59쪽

총 7장에 67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회하고 환생한 유명인의 윤회 사례와, 원을 깊이 있게 세우면 몸을 바꾸어서라도 성취하게 됨을 알 수 있게 하는 8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제2장 '사바의 문제는 삼독(三毒)'에서는 급한 성질과 고집과 신경질을 다스리면 능히 삼독을 다스릴 수 있다는 법문과 함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실체와 과보에 대한 11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3장 '사바의 꿈에서 깨어나라'에서는 사바세계의 실체를 일러주는 이야기와 사바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12가지 이야기가 실렸다.

제4장 '정성과 원성취'에서는 정성만 들이면 최상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과,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8가지 이야기로 깨우쳐 주고 있다.

제5장 '인욕과 정진과 성공'에서는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내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과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문득 힘이 생기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7가지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제6장 '복 지어야 복 받는다'에서는 복을 담는 1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제7장 '지혜롭게 살아가라'에서는 지혜로써 업을 녹이고 교화한 불교이야기 7가지를 담았다.

경봉 스님은 우리에게 "'참을 인(忍)' 세 개를 가슴에 품으라" 설한다. '인욕하라'는 당부지만, 이는 남에게 당하는 것을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나쁜 버릇, 급한 성질이나 고집·신경질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푹 빠지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참을 인자 세 개를 가슴에 품어라' 55쪽

설한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에는 살다 보면 부딪히는 각종 문제와 좌절, 극복과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 스님의 법문을 함께 싣고 있다. 사바세계의 실체를 비롯해 윤회·원력·지혜로운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또한 영조대왕, 당태종, 한신, 암행어사 박문수, 영의정 정원용, 육조 대사, 자장 율사, 서산 대사 등 위인의 감명 깊은 이야기들은 마치 구수한 옛날이야기 한자락을 듣는 듯하다.

제1장 '윤회부터 믿어라'에서는 윤

운수납자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다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지음
불교신문사
1만8000원

'산과 강처럼 살고 싶었다'는 산강(山江) 대혜(大惠)스님이 2019년 원적에 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보낸 이야기를 엮은 〈봉암사 동안거 일기〉를 출간했다.

대혜 스님은 청소년 때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고, 이는 출가로 이어지는 길이 됐다. 1978년 직지사에서 영허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불국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사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원에서 불교를 배우며 '부처님의 머슴이 되어야겠다'고 발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런 스님에게 뜻하지 않게 봉암사 선원에 갈 기회가 생겼다.

포교 일선에 있었던 대혜 스님은 선원이 낯설었다. 그래도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한번은 경험하고 싶었던 게 선원에 방부를 들여 수행하는 동안거였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당대의 선지식으로 알려진 봉암사 주좌인 적명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보낸 것은 큰 행운이기도 했다.

2014년 겨울 봉암사에 동안거에 들어간 대혜 스님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됐다. 틈틈이 시간을 내 매일 저녁에 일기를 썼던 것도 값진 일이었다.

봉암사에서 100일간의 동안거에 들어 정진하면서 대혜 스님은 많은 수행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길 없는 길'이라도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앉은 곳은 허공이다. 선방에 온 지도 보름이 지났다. 공부에 진전이 없다. 14시간씩 정진하는 방사도 있다. 해제 일주일 전부터 철야정진하는 선원도 있다. 참 대단하다. 밑도 끝도 없는 정진이다. 그저 앉아서 화두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란 말인가! 한심하단 생각도 든다. 정진하는 분위기는 좋다. 무엇이 보이는지. 닭이 알을 품는 것은 부화라고 해서 새끼를 품겠지만 좌선은 뭔가?

– 그 자리(2014년 12월 23일 일기에서)

하지만 정진을 거듭할수록 수행의 오묘한 맛을 느끼기도 했고, 나름대로 느낀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자문자답의 선문답도 해 본다. 이 과정들이 모두 스님의 일기에 담겼다. 동안거 해제를 하면서 대혜스 님은 화두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기도 했다지만 자신이 경험한 선수행의 체험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다. 스님의 뇌리에는 번뇌망상을 오롯이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견성처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한다.

"밝은 달 만큼 내 마음도 밝으면 좋으련만 / 잡념만이 가득하니 비워도 비워도 / 끝이 없구나. /회양산 애기암봉, 장성봉, 구왕동, 관음봉 / 오를 때 다 버린 줄 알았더니 / 착각이었구나./ 큰방에 몸뚱이만 앉았으니 / 견성처(見性處)는 어디인고?"

–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2015년 3월 5일 일기에서)

한편, 대혜 스님은 2017년 구미 금오산 정상에 위치한 약사암 주지로 부임해 등산객들에게 산중포교와 SNS를 통한 전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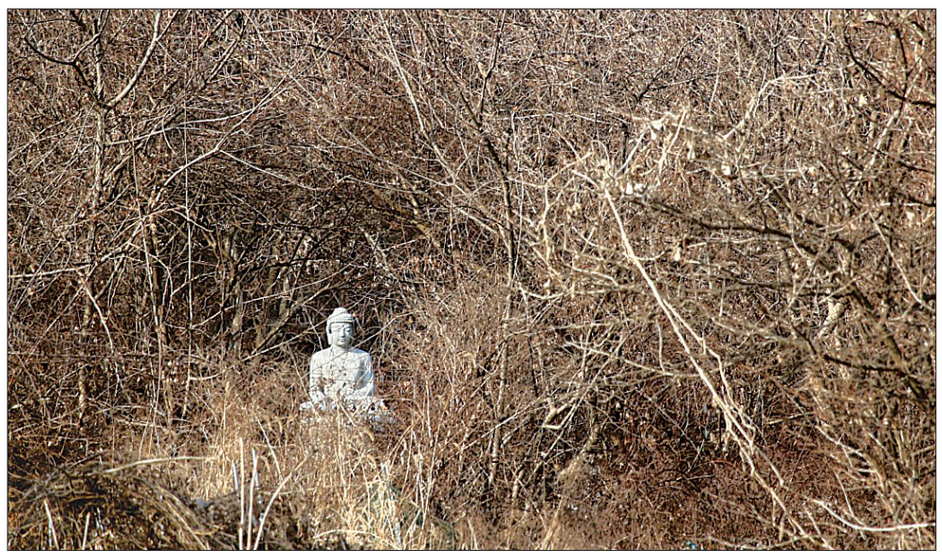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다 간 '인간 붓다'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펴냄
2만3천원

신화 · 설화 걷어낸 '인간 붓다' 조명
붓다 인간적 면모, 또 다른 가르침
"붓다 가르침 여전히 강력한 진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사진 DB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붓다는 신격화된 붓다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을 살다 간 인간 붓다이다. 필자는 붓다의 참모습과 바른 가르침을 모아 불경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 붓다의 모습을 초기 율장인 〈마하왁가〉와 〈쭐라왁가〉에서 찾아 정리했다."

붓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책 〈인간 붓다〉는 붓다의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대중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초기 율장에서 가려 뽑은 붓다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을 소개한다. 붓다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중생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화적인 부분과 설화를 걷어낸 '인간 붓다' 이야기이다.

붓다는 실존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대중은 붓다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면모만으로 그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전생에 오랜 세월 보살행을 닦고 연등불의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머물다가 인연이 성숙하여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었다. 이것이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붓다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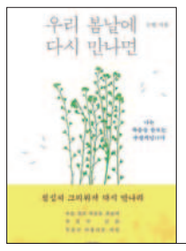
불교는 싯다르타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초기 율장인 〈마하왁가〉는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이룬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붓다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초야에 숙명통을 성취하고, 중야에 천안통을 성취하고, 후야에 누진통을 성취했다는 설도 있고, 4성제를 깨달았다는 설도 있고, 12연기를 깨달았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마하왁가〉에서는 붓다가 12연기를 유전문과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한 것이 붓다가 깨달은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의 역관과 순관은 4성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하왁가〉는 12연기와 4성제가 붓다가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만한 바라문들의 도전, 자신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제자와 신도,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고타마 싯다르타 자신과의 싸움. 붓다의 삶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은 붓다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인도의 수많은 천신도 이미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종교와 신화라는 포장을 걷어내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를 직시하면,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드러난다.

책 〈인간 붓다〉에서는 그가 겪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루어낸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가 얻은 승리는 고고한 이상향이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실적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됐고, 그 감화야말로 오늘날까지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이것이 붓다가 이룬 위대함이다. 그래서 '인간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책 〈인간 붓다〉는 붓다의 생애와 그의 깨달음을 통해 오늘의 대중에게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의 대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단순하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이 책을 통해 대중은 고대의 지혜와 오늘의 문제를 연결 짓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강력한 진리인 것이다. 책 〈인간 붓다〉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 더 아름다운 삶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능행 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8천8백원

"사실 아내는 3년간의 투병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몸을 놓고 훌훌 떠나고 싶었지만, 병든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보살펴온 정토마을 자재병원 능행 스님이 그동안 환자들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들을 묶어 새롭게 펴냈다. 책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은 저자의 기출간 베스트셀러 도서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와 〈이 순간〉 〈숨〉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글을 가려내서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 쓴 글을 추가해 엮었다. 위 세 권의 도서는 죽음과 소생이라는 불교의 희망적인 내세관을 많은 대중에게 읽기 쉽게 소개하여 출간 당시 수십 만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다.

"마침내 남편은 아내에게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부부는 3일 동안, 살아온 옛이야기부터 그동안 투병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잠자듯 떠났다."

책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은 능행 스님이 수천 명의 죽음을 돌보며 지켜본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여정과 그 여정이 가져다 준 깨달음들이 담겨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죽음. '죽음'이라는 명제는 같지만 그 길의 여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수많은 길을 지켜보는 일이 능행 스님에게는 다름 아닌 수행이다.

"죽음은 그 죽음을 딛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떠나는 여행과 같다. 남편은 아내가 꾼 꿈처럼 죽음이 육신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곳,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곳,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나는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성찰을 했다고, 사십구재 기간 동안 만날 때마다 말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다음 생에 대한 배움을 시작한 것 같다."

이별과 상실의 아픔, 관계의 굽이를 지나 스님의 이야기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이생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인 저자는 정토에 태어나는 길로 대중을 안내한다.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염불수행을 권한다. …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발원이다.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음 생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여정에 임해야 한다. 죽음에 가닿는 순간이야말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기회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능행 스님은 '죽음도 삶이 여정'이라는 신념으로 30년간 수천 명의 죽음을 배웅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 제대로 된 호스피스 시설이 없음을 가슴 아파하던 스님은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정토마을을 세웠고, 이후 불교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자재병원을 건립했다. 2021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재완 기자

사찰·불교문화 해설 관한 안내서



사찰문화해설 가이드북
이지범 지음
도서출판 중도
2만8천원

〈사찰문화해설 가이드북〉은 사찰과 불교문화 해설에 관한 안내서다. 우리나라 사찰과 문화, 불교의 기본사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와 더불어 사찰문화해설에 필요한 해설의 기본 개념과 관련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찰문화해설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해설의 요령(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서론(Ⅰ·Ⅱ)에서는 사찰문화해설의 기본 장소인 사찰에 관한 내용과 해설의 기원을 설명하고, 해설사의 직무론과 연관된 기본과제를 비롯해 개인적 자질과 해설요령에 관한 것들을 탐구했다.

본론(Ⅲ·Ⅳ·Ⅴ·Ⅵ·Ⅶ)에서는 어떤 사찰을 안내 또는 해설한다고 할 때, 출발지점에서 해산 지점까지 참가자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끼는 심미안(審美眼)을 중심으로 기본사항을 서술하여 문화유산 해설과 지역 안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 특히, 표본 사례에서는 사찰의 주요 시설물과 건물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쓰임새와 전각의 주인공들을 다루었다. 일반적 이해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의 주요한 특징과 조형미 등으로 소개한다. 붓다의 사상체계에서는 부처님 연대기를 비롯해 대표하는 제자들, 기본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궁금한 불교 상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결론(Ⅷ)에서는 사찰문화해설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자료,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그 방향에 경험적 요소를 설정했다.

저자 이지범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 동네에서 태어났다. 1990년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출가·환속했다. 2011년 고려 초초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등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등의 일을 맡았다. 현재, 북한불교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 대한불교청년회가 개설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과 심화과정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2024년 3월 경기도 수원에서 결성된 경기문화유산교실 교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무엇이 삶을 구원하는가?"

★★★★★
오프라 윈프리가 선택한 화제의 그 책!

세상을 놀라게 만든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뭉클한 고백
일상이 폭력인 곳에서 붓다를 만나 내면의 자유를 찾다!

붓다의 감성을 전하며
붓다를 닮아가는 어느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삶은
이제 고독한 독백이 아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든 한 인간의
인격 성장기이자 가슴 뭉클한
고백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다.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456쪽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한때는 '나'였던 것들과의 작별,
이것이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명상·영성 분야 1위) ★★★
★★★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의 추천 ★★★



내면 치유
용 푸에블로 지음 | 권혜림 옮김 | 262쪽 | 20,000원

내면 치유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

추천의 말 —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킨다

"이 책은 우리 역시 내면과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 샤론 샐즈버그,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의 저자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는 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격려이다."
- 잭 콘필드,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의 저자

지상백고좌

동사섭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

“우린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습니다”



용타 스님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4세에 청화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승려 신분으로 10여 년의 교직 생활 후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1980년 불교의 근본가르침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동사섭 프로그램을 계발해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 귀신사(歸信寺) 회주, (재)행복마을 회주, 한국명상지도자협의회 원로로 있다.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10분 해탈〉〈공(空)〉〈행복노트〉 등이 있다.

함양 천령산 자락에 위치한 동사섭 행복마을로 가는 길엔 자귀나무가 연분홍빛 꽃을 무겁게 달고 있다. 우산 모양의 자귀꽃은 마을 어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행복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자극한다.

동사섭 행복마을은 1980년 용타 스님이 주도하여 강진 무위사에서 T그룹 워크샵인 엔카운터 모임에서 출발했다. 2007년 경남 함양에 터를 잡고 동사섭문화센터를 개원하였다. 동사섭 행복마을은 올해로 43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명상수련센터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동사섭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영성수련회를 지도했고, 지금까지 3만 여명의 수련생이 배출되었다. 수많은 사람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있다.

용타 스님에게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여쭈었다. 그러자 스님은 “해탈로 넘치고 있다”고 했다.

“요새는 행복과 해탈로 넘치고 있어요. 단, 여기서 해탈 개념은 달마불교의 해탈 개념입니다. 지금여기 걸림 없는 자유, 이 마음 이대로 부처요 열반이라는 즉심즉불 즉심열반(即心即佛 即心涅槃) 등이 달마 대사가 주창한 불교입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져야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은 석존 이래 가장 전통적인 가르침이지만, 달마 대사는 조사선(祖師禪)이라는 새로운 불교의 문을 여셨지요. 탐진치를 다 해결한 다음에 부처가 된다는 이론에 제동을 건 격이었지요.”

그러면서 용타 스님은 말을 이었다.

“저는 45살 무렵부터 조사선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대로가 바로 부처요, 열반이라는 조사선 가르침이 온전하게 자가 수긍이 될 때까지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진치(貪嗔痴) 삼독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야 부처이자 열반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명상 중에 즉심즉불(即心即佛)과 즉심열반(即心涅槃)이 납득, 수긍 돼버렸어요. 농담이지만 나이 팔십을 넘기고 볼 일입니다.”

‘동사섭’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사섭법(四攝法)중 하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섭인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다 아우르는 개념”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이것저것이 관계적으로 엮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그 무엇을 내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 되어버려요.”

용타 스님은 전남대 철학과 3학년 때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출가의 계기를 여쭈었더니 ‘같은 과 친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에 이끌린 것’이라 한다. 그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졌다. 2~3개월 고심 끝에 꿈속에서 프리즘을 없애라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 뜻을 잡아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대로 출가의 길로 나아갔다.

불행은 행복하단 사실 외면한 것
인식 부재 인해 스스로 불행해져
행복으로 ‘코드’ 돌리는 게 ‘수행’

동사섭 모든 수련 체계를 위해서
정체 등 ‘삶의 5대 원리’ 설정해
“주인정신 갖고 마음 관리 잘해
주변과 화합하고 바른 행동하라”

“은사 청화 스님의 가르침이라면 ‘해오(解悟)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증오(證悟)주의로 나아 감’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오(解悟)란 이치를 이해하는 깨달음을 말하고 증오(證悟)란 삼매를 통하여 증득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은사스님의 스승이신 금타 대화상이 288자로 이루어진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이라는 경전을 ‘해오하고 증오하라’고 평생 가르쳤지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보리방편문〉과의 만남이라고 수없이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용타 스님은 “오늘 인터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윤정 보살이 도통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큰스님들 인터뷰를 했다면 준비가 충분히 되었겠네요. 도를 통하는데 세월이 걸린다면 문제지만 5분, 10분이면 해탈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해버리시지요. 쉬운 예로 원효 스님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깨우쳤어요. 이처럼 해오주의 깨달음은 닦음의 시간이 필요 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10분 만에 해탈된다는 스님의 말에 더럭 겁부터 났다. 기색을 눈치챘는지 용타 스님은 웃으며 말을 더했다. “부처는 선언해 버려야 할 개념이지 갈고 닦고 준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고 보면 부처 아님이 없다고 했으니 스스로가 부처임을 받아들여서 ‘나는 활불이다’라고 선언하고, 활불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지요.”

용타 스님은 중생의 의미를 번뇌를 다 끊어내지 못한 부처로 이해해야 하는데, 중생과 번뇌를 동일시해 버리는 사견이 형성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인간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불교에 있다. ‘이 마음 이대로 부처요, 두두물물이 부처요, 온 법계에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금구(金口)들이 무수히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법설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용타 스님은 동사섭의 모든 수련 체계를 위해 삶의 5대 원리를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덕목으로 정리했다.

5대 원리 가운데 첫 번째인 ‘정체’는 나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인데, 먼저 주인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은 주인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인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주변을 살피게 되고, 자기 주변이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노력합니다.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면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요. 좀더 나아가서 초월적 자아관을 가지게 되면 걸림없는 마음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행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동사섭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

“행복 주체는 ‘우리’…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12면에 이어

모든 것에 감사하면 지족 가능
“우리는 감사 속에 살고 있다”
구족함을 아는 게 ‘행복해탈법’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이 ‘지족구현’ 글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원인데 큰 소망, 큰 꿈을 뜻한다. 스님이 바라는 대원이란 ‘우리 모두의 행복’이란다. 사무치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빌다보면 처음엔 머리로 신념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진정으로 빌게 된단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닦고 관리한다는 ‘수심’이다. 우리에게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도 있고, 행복에 방해가 되는 마음이 있는데,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은 내 의식 공간에, 내 마음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현실이 있다면 먼저 내 마음 속에 그 현실의 영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은 장착하고, 행복에 장애되는 마음은 지우고 정화한다는 것이 바로 수심이지요. 마음 관리를 잘 해서 진정으로 찬란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현실은 항상 내 마음의 투영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화합’이다. 수심을 잘해서 마음을 평온케 하고, 다음엔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잘해서 관계를 평온케 만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작선’인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 노릇 잘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 잘하고, 선생은 선생 역할 잘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용타 스님은 “삶의 5대 원리를 실천해 진정으로 찬란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삶의 5대 원리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 동사섭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처음으로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채택됐다. 그후 만족도가 높아 스님들을 위한 지도자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이에 용타 스님은 ‘정사유’를 첫 번째로 꼽았다. “팔정도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사유(正思惟)’를 1번으로 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유를 하시어서 연기법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사유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중중첩첩 억만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이 모양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사유를 수준 낮게 하면 불행해지는 길이고, 수준을 높게 해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더 높게 해버리면 해탈하는 거예요. 사유의 아들이 정견(正見)이어요. 저는 바른 생각에서 정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의 이치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수준 높은 사유일까요.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은 결과 해탈이 되고, 대자대비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너와 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몸인 것이지요. 바로 전체가 어우러진 한몸이니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기를 바로 보게 되면 해탈이 경험되고 또 바로 보면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연기 개념입니다.”

스님은 팔정도에 대해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명상(冥想)에서 ‘명(冥)’은 팔정도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정정(正定)이고, 상(想)은 생각 즉 사유이다. 스님이 생각하는 명상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유를 잘 하는 것’이란다.

용타 스님께서는 ‘10분 명상 10분 해탈’이라는 공식을 내세웠다. ‘한 세월 수행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문득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만큼 해탈이 성취된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저는 순간순간의 해탈, 하루하루의 해탈을 귀하게 여겨요. 순간의 해탈이란 문득문득 탐욕이나 분노가 일어나 마음의 청정을 헤치고 있을 때 한 생각 돌려 탐욕과 분노를 정화해가는 것이지요. 하루의 해탈이란 하루의 어느 시간에 별시선(別時禪)으로 10분도 좋고, 30분이나 60분 이상의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면 자아가 사라져버려요. 자아가 사라질 때가 1차적인 해탈일 것입니다.”

‘10분 명상법 중 무아관은 모를 때는 은산철벽과 같이 느껴지겠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라는 말씀에 그 이유를 물었다.

“나를 지수화풍, 수상행식 이렇게 여덟 조각으로 분해해서 관하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의 가합체인 존재가 자아로 느껴지지 않고 점점 무아로, 실체 없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나’를 실체로 느끼던 자아는 사라지고 해탈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비아(非我)명상법입니다.”

무아의 이론적인 이해는 간단하지만 반복해서 실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지론이다.

용타 스님은 행복 전도사이자, 행복 전문가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스님은 △구현행복론 △지족행복론 △초월행복론 등 세 가지 행복론을 제시했다. 앞으로 노력해 소유할 미래형 소유가 있는데, 미래형 소유에 집중하면 ‘구현행복론’이 만들어진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 다음은 베풀어야 한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소유 즉 완료형 소유에 집중하게 되면 ‘지족행복론’이 만들어진다. ‘초월행복론’은 ‘없음 행복론’이라고 해도 된다. 천하를 있음이라고 여기는 한 완전한 자유는 없는데, 없음의 철학, 공(空) 철학을 받아들이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다. 스님은 “불교의 공철학은 부처님이 전 인류에게 던진 최고로 귀한 선물”이라며 활짝 웃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음이 확실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복 속에 있음을 인식한다면 넘치는 행복과 해탈 속에 있는데, 인식의 부재로 스스로 불행한 골을 파고 있어요. 아직 시력도 좋고, 후각도 문제 없고, 이빨도 튼튼하고, 밥도 잘 먹고, 오른팔 왼팔 멀쩡하고 내가 이미 행복 속에 있구나 하고 인식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식 코드를 그쪽으로 안 돌리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코드 쪽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코드 하나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코드를 돌리게 하는 운동이 수행입니다. 동사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코드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코드를 행복, 해탈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행불행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과 통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용타 스님이 갑자기 “행복이란 무엇인가요”하고 질문을 던졌다. “집이 있고, 몸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답하자, 스님은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오랜 세월 생각했는데 행복은 지극히 평이한 개념으로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불행하다고 하고, 이 느낌이 좋을 때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굿 필링(good feeling)’이라고 하지요. 행복은 좋은 느낌,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인데 느낌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의 주체는 대부분 ‘나’라고 답하지만, ‘우리’입니다. 나 혼자서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좋은 느낌을 유지하려면 생활에서 지족명상을 실천하라는 게 용타 스님의 제언이다.

“지족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지천으로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지족하는 것이 지족명상입니다. 물, 햇빛, 공기, 나무 등 모든 사물에게 감사해보세요. 내 몸부터 시작하여 남편, 아내, 자식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보세요.”

하루에 100번의 감사로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미 구족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 용타 스님의 수행법이요, 행복 해탈법이다.

행복마을을 내려오면서 스님의 가르침에 밑줄을 긋는다. 돌아보니 꽃향기에도,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행복이 담겼다.

문윤정 / 작가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⑭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약수곡 석조여래좌상은 청와대 불상과 같은 방형대좌를 가졌다. 2020년 불두가 발견됐지만 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존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복원 · 재현에 나서야 한다.



불두 없는 부처님, 왜 복원되지 못할까

올해 6월, 7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유명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붓다순례에 참여하여 '피서산장'으로 유명한 중국 '열하'에 다녀왔다. 자현 스님은 개인적으로 박사학위 지도교수이기도 하고, 박사학위 1호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한 인연이 있다. 조선시대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의 장소이기도 한 열하는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 쉼터여서 '피서산장'이라고 한다.

박지원은 아웃사이더여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열하일기〉는 조선 사회의 틀을 깨고 싶어 한 글이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전을 보면서 경쟁을 통한 발전이 사라진 조선 사회의 낙후를 지적했고, 경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조선 사회에서 〈열하일기〉는 금서가 되었다.

〈열하일기〉는 조선의 낙후된 모습을 보여준다.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박지원을 포함한 조선의 사신단은 한양에서 출발한다. 청나라 황제는 매년 5월 15일 북경을 출발하여 '피서산장'인 '열하'에서 생활하다가 9월이 되면 북경으로 돌아온다.

조선의 사신단은 이러한 정보도 모르고 황제가 없는 북경에 도착했다가, 건륭제가 '피서산장'인 '열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없이 발길을 '열하'로 돌려가고 있다.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면서, 청나라의 황제가 매년 여름 휴양을 떠난다는 것조차 몰랐을 정도로 조선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였다.

조선은 이후에도 계속 외부에 관심이 없기는 여전했다.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는 영국군 병력 4천 명에게 항복하였다. 이후 전 세계가 그리고 일본도 중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얕잡아 보기 시작했는데, 조선만이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조선은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영국에 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이겼다고 생각하려 노력하였다.

10년 전 유학(儒學)을 공부할 때 주자나 공자의 고향에 두 번 다녀온 적은 있었다. 유학을 공부한 것은 조선불교를 이해하려면 필요하다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출가한 내가 중국에 사찰 순례가 아닌 유학의 시조 탐방을 먼저 다녀온 것이 이상하기도 하다.

10년 만이다. 북경을 거쳐 '피서산장'이 있는 도시 '열하'를 바라보면서 턱이 빠졌다.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겨우 10년 만에. 여타 관광지도 그렇지만 특히나 사찰 또한 깨끗하게 단장이 잘 되어있었다.





경주 남산의 약수곡 석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2020년 발견된 해당 불상의 불두(사진 오른쪽).

현재 한국 사찰들은 조선 중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찰들이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사찰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다. 전문가만이 폐사지의 초석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을 가면 '조선 중기 이전 우리의 사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은 한국이 불교문화를 받아들인 곳이고, 일본은 한국이 불교문화를 전래한 곳이다. 일본과 중국은 시대별로 사찰의 변화상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 이전 사찰의 모습이 일본과 중국에는 남아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불교는 1592년 임진년과 1630년 병자년 두 전란의 영향과 억불로 불교학이 사라진 종교가 됐다. 조선 후기가 되면 한국불교 문화의 수준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수준이 떨어진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자기만의 리그에 빠진 조선사회의 분위기와 겹쳐서 조선불교 또한 다양성이 상실된 단일화된 모습이 된 것이다.

불상 부재 중 '방형대좌'라는 것이 있다. '방형'은 사각을 말하는 것이고, '대좌'는 부처님께서 앉아계신 좌대를 말한다. 즉 사각의 대좌가 '방형대좌'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성된 불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둥근 연화대좌에 앉아 계신 불상이 눈에 익숙하다. 연화대좌는 둥근 타원형의 연꽃 문양 대좌이다. 그런데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엔 사각의 대좌에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이 종종 보인다.

> 청와대 불상 같은 방형대좌 가진
> 경주 남산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 불두 발견됐지만 복원은 '하세월'
> 보존에 갇히지 말고 복원 나서야

이번 순례에서 만난 1000년대 거란의 요나라가 중심 사찰인 '계대사', 1700년대 강희제와 건륭제가 100년에 걸쳐 완성한 '피서산장' 주위의 '보녕사' 등 사찰들 대부분이 사각의 좌대인 '방형대좌'가 불상 좌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사각의 '방형대좌'는 수미산을 의미한다. 수미산은 정상이 사각으로 평평하게 되어있다. 또한 사각의 모서리 끝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고, 중앙에 1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총 5개가 세워져 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생각하면 된다. 이 수미산의 사각 중앙에 부처님이 계신 것을 형상화한 모습이 사각 방형의 대좌에 앉은 불상인 것이다.

방형대좌 관련 대표적인 불상은 청와대 불상으로 알려진,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다. 지금도 청와대 뒤편에 모셔져 있다. 1912년 경주의 일본인(도다이라 료조)이 조선 총독(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선물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1939년 조선총독부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로 옮기면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의 폐사지 절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최근에는 경주 남산 서쪽 건너편에 있던 '이거사지' 터가 원래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다.

청와대 '방형대좌'의 불상과 똑같은 쌍둥이 불상이 경주 남산에 복원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도 쓰러져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불두가 발견된 '방형대좌'의 경주 남산 '약수곡 석조여래좌상'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불상은 이곳 약사곡 사지에 있었지 않았나 싶다. 두 불상은 불두의 모습도, 불상의 모습도, 방형좌대의 모양도,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2004년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약수곡 제4사지 석조여래좌상이 있던 곳에는 4곳의 건물지가 확인된다. 그리고 대좌는 상대석·중대석·하대석 모두 방형의 사각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나 하대석은 24개의 연화문의 문양을 하고 있는데, 상대석은 연화문이 아닌 두 개의 고사리 문양이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다. 이 또한 청와대 불상의 '방형대좌' 상대석의 문양과 같아서 둘의 깊은 연관성을 알려주는 듯하다. 불상의 오른손은 수하항마의 수인을 하고 있고, 왼손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결가부좌 한 오른발 위에 올려놓았다. 석굴암 불상처럼 풍만한 가슴과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듯 뽐내고 있으며, 법의는 오른 어깨를 내놓은 우단편견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 사찰순례 5일 일정 동안 부러운 것이 있었다. 만리장성과 접한 곳에 '고북수진'이라는, 우리로 치면 민속촌 같은 곳을 갔었다. 일반 사람들은 옛 중국의 마을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놓았다. '고북수진'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만리장성 밑에까지 갈 수 있었다. 잘 닦여진 잔도를 좀 걸으면 산꼭대기에 있는 만리장성에 오를 수 있었다. 열하의 '쌍탑산'과 '경추봉' 등 산 위의 멋진 문화유산에는 리프트를 설치해서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문화혁명 시기 파괴되었을 문화유산 모두 완벽하게 수리를 하거나 복원을 해놓았다. 이번 순례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복원과 재현을 못하고 있을까?'

경주 남산에는 1300년 전 원형의 불상 모습을 간직한 마애불상이 열암곡에 지금도 누워있다. 약사곡에는 불두가 2020년 발견된 '방형대좌'의 청와대 불상과 똑같은 쌍둥이 불상이 지금도 파괴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중국과 일본은 복원과 재현을 통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여주려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나 보존의 틀에 갇혀 훼손된 모습 그대로 놔두기만 하는 것일까? 경주 남산의 불국토 문화유산을 순례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1호 | 15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곧 나요, 내가 곧 남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남사천
- 대지 : 2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매가 : 3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법당 : 100평
- 시내공원앞
- 주차가
- 매가 : 12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6500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 대 지 : 260평
- 법 당 : 46평 7포 황금단청
- 요 사 : 72평
- 가 액 : 43억

010-3765-177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파주, 문산 지역
- 비어있는 사찰!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을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법사님을 찾습니다.
- 파주시 파주읍 바리골길 260-227

010-4069-5315
010-2344-7304

사 찰 안 내

부산, 경남, 울산, 경북,
경주지역 사찰전문 부동산

- 이 지역 사찰 매도하실 분이나 사찰 구하시는 스님 연락주세요. 거래 많이 이루어 집니다.
- 사찰직방(사찰·포교당 매매전문)

NAVER블로그 사찰직방 검색

010-7348-314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사찰토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1호 | 16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러 다닌다.



부처님 말씀 읽기 -《불설무희망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민불종 종립대 자비무료 장학 대학원

기초에서 천문신공까지 30여 과목 모두 무료

어느곳에서나 재택, 재, 사, 암 모바일교육
접수 즉시 교재 필도구 배송, 예습 가능 시험도

*장학위원 교수 후원인도 기다림 02-904-3375

총무원 02-907-5858 예불은 010-7387-2833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밀양 재악산 영산재 학인모집

의식 및 사물. 대금. 태평소
전통의식에 관심있으신분 많은동참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밀양시 초동면 영원사

010-3156-2211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 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㊸ 창작극 〈만신: 페이퍼 샤먼〉



국립창극단의 창작극 〈만신:페이퍼 샤먼〉의 한 장면.

불전 사물이 소리로 중생제도 발원 전하듯
四대륙 샤먼들 '굿'을 통해 희망을 노래해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더불어 울리는 불전의 사물 소리는 삼라만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물들을 울리는 까닭은 말과 글로 소통하는 사람만이 아닌 삼라만상 저마다에게 지극한 정성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다. 땅에 깃든 중생 가죽으로 만든 법고의 소리가, 물을 터로 사는 중생에게는 물고기 모양의 목어가, 하늘을 나는 중생에게는 구름 모양의 운판이, 이미 죽어 지옥불에서 고통 받는 중생에게는 용광로를 거쳐 두드려 만든 쇠로 만든 범종이 아침저녁으로 '소리'를 울려 제도의 발원을 전한다. 그렇다. 소리는 힘이 있다.

국립창극단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무대에 올린 창작극 〈만신: 페이퍼 샤먼〉은 불전사물의 뜻을 담은 지극한 기원과도 같았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란 국악 전공자로서 공동 극작, 음악감독까지 맡은 박칼린 연출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평창 월정사에서 열인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서 〈리파카 무량〉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공연했던 이력을 생각하면 〈만신: 페이퍼 샤먼〉이 무속의 얼개에 불교의 뜻을 담는 형식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

"치유사, 힐러, 무당, 마녀, 마법사, 수호자, 위치 닥터, 드루이드, 투앗드다나안, 만신, 샤먼…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예민한 자들이여"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다른 대륙에서 온 영험한 자들이 모여 아시아 동북쪽 한국을 찾은 까닭은 어떤 치성이 닿았기 때문이다.

시공간을 넘어 다른 대륙의 예민한 자들에게까지 닿은 치성은 아주 평범한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 하나 점지해 주소서"라는 소박한 기원. 등장하면서부터 기후위기며 가자지구의 폭격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소리로 관객의 기대치를 높인 예민한 자들 앞에서 삼신굿을 올리고 아이를 바라는 첫 시작은 아주 소박하다. 삼신굿에 답해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는 팔자가 평범하지 않으니 감추어 키워야 한다는 무당의 예언도 글로벌 재난과 위기에 비하면 별 것 아닌 듯하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계곡처럼 많은 것을 품으라는 이름 '실'을 받고 담장 안에 꽁꽁 숨겨져 자란다.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오직 '소리' 뿐이다. 담장 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사정들. 그 사람들의 푸념이나 궁금한 것들도 별 것 아니다. 좋아하는 이웃 오빠, 가족의 건강 따위 사소한 일상들. 고만고만한 일들에 대해 덕담처럼 건네지는 실의 목소리가 용하다며 밖으로 이끌려 나가기까지는 다른 대륙의 예민한 자들이 쏟아낸 재난과 위기에 비해 한국적 무속의 스케일은 참 소박하다 싶다. 용하다고 반기던 이웃들이 길한 일 뿐 아니라 흉사도 가리지 않고 전하는 실에게 보내는 적대 앞에서 실의 가야할 길이 험한 들 얼마나 험하랴 싶을 정도로 어린 실이 강신무가 되기 전까지는 고민도 갈등도 소박하다.

자신이 남과 다르게 앞날을 알고, 죽은 존재들을 보고, 사람 아닌 뭇 생명들과 통하는 것을 알게 된 실이 내림굿을 받고 강신무가 되는 과정은 창과 소리, 춤과 놀이를 아우르는 한국 전통예술의 바탕에 무속이 있고, 그 바탕을 제대로 익힌 연희자들의 소리와 사위에 실리니 멋과 흥을 한껏 돋운다.

그래도 갓 신 내림받은 어린 무당이 4대륙 샤먼들을 두루 불러들여놓고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걸까 싶다. 오랜 세월 길흉 점치고, 아이 점지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토속 신앙으로서의 무속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으려나 싶을 때 친어머니와 신어머니가 실을 떠나보낸다. 큰 신이 내린 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의 길을 찾으라면서.

실의 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바로 처음부터 지켜본 다른 대륙에서 온 예민한 자들이다. 영화 〈서편제〉에서 이미 대중적인 소릿길을 펼쳐보인 안숙선은 소리꾼으로는 드물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창한 대명창으로서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무대의 작창을 맡아왔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창극단 소속으로 스타가 된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이 작창을 함께 했다. 이 둘이 어찌 다른 대륙의 샤먼을 그려낼까, 한국적 소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의 무속을 표현할 수는 있을까 싶었는데, 새로운 창극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일 듯하다.

무릇 무당이란 다른 존재를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하고 '예민한 자'들이라는 처음의 정체성 선언은 창극단 연희자들의 신들린 무대에서 관객을 휘몰아친다. 백인 노예무역상에게 잡혀가다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된 아프리카의 희생자들,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몰리고, 뺏기고,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과 버팔로들, 비무장지대 DMZ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습도 못되고 낡은 군화로 굴러다니는 넋들, 제국주의 백인들 발길이 닿은 후로 무성하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멸종되는 짐승들과 부족들….

다른 역사 다른 대륙의 샤먼들을 통해 그 처절한 한이 무대에 넘치고 넘쳐 관객에게로 흘러들 때, 그저 자기가 왜 남들과 달라서 숨어 살아야하냐고 투정부리던 실이 그 한에 아파하고 절절한 씻김굿을 펼칠 때, 우리는 모두 하나요, 이 세상 어느 고통 어느 희생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지구적 차원의 전쟁과 재앙이 켜켜이 쌓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다.

한국의 소리는 '한'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무속은 무당의 목소리와 몸짓을 빌어 '한을 풀어주는 굿'으로 펼쳐진다. 어떤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바리데기가 길을 떠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었듯 실이 전세계의 과거와 현재의 한 서린 기운을 따라가는 씻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실 혼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까지.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이번 무대를 이끈 유은선 감독은 한국 전통 무속에서 종이로 꽃을 만들던 전통,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를 하던 놀이 문화와 임상현장에서 실제 치료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사례 등을 생각하며 무대 위의 모든 것을 종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세트와 소품, 의상의 일부를 종이로 만들면서 '페이퍼 샤먼'을 기획했다고 설명한다.

박칼린 감독은 그동안 미신이라고 억압하고 천대하던 샤먼에 '땅과 물, 바다와 바람에 깃든 슬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풀어주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들은 한국 전통 삼신굿, 용왕굿, 내림굿, 씻김굿을 통해 희망을 말한다.

박칼린 감독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지하 대피소에서 한 소녀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전해져 세상을 울리는 모습에서 "이 나라와 사람들은 여전히 꿋꿋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래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그렇구나. 노래는, 소리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절에서 예불을 소리 내서 하는구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삼라만상에게도 소리는 희망을 전하는 힘이 있겠구나. 법고식이 내 마음을 울리는 까닭이 사물을 울리는 스님들의 정성된 움직임과 정교한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 희망과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준 창극 〈만신: 페이퍼 샤먼〉, 뮤지컬 〈리파카 무량〉과 같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㉗

1. 불교에서 수행하고 포교하는데 필요한 유형무형의 일을 행하는 것을 불사(佛事)라고 한다. 다음 중 불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탑을 세우는 일
②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③ 관상(觀相)을 봐주는 일
④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일
⑤ 사경(寫經)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해설 : 탑을 세우거나 사경을 통해 어렵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일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스스로 수행이 되고 남에게 포교를 하는 일이다. 관상은 익숙하게 알려진 말로는 얼굴의 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 수행자가 부처님이나 성자(중)의 호상(好相)을 뵙는 일을 관상(觀相(想))이라고도 하나 이는 '봐준다'라는 어구와 호응되지 않는다.

2. 욕심(慾心)과 발원(發願)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욕심은 미래에 중점을 두지만, 발원은 현재에 중점을 둔다.
② 욕심은 과정 자체를 중시하지만, 발원은 결과를 중시 여긴다.
③ 욕심은 대립과 분열을 낳지만, 발원은 진정한 행복을 낳는다.
④ 욕심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원은 이타적이다.
⑤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비해서 발원은 순수의지를 지향한다.

해설 : 욕심은 나에 대한 집착에 의거한 이기적인 욕망의 실현을 촉구하는 마음이고 발원은 나를 내려놓은 공심(公心)에 의거한 이타적 배려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욕심과 발원은 비슷하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다름으로 욕심은 오지 않은 미래에 중점을 두며, 결과 그 자체에 매달리고, 대립과 분열을 낳으며, 개인적, 이기적이고, 자신의 의도를 계속 반영한다. 발원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3. 불자의 신행 생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불자들의 신행 생활은 절에 갔을 때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는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② 불교는'수행의 종교', ' 깨달음의 종교'이기에 믿음을 통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은 불교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미신적 행동이다.
③ 불교의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것이므로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교의 참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데, 죄의 본성이 본래 없고 고정 불변하는 실체도 아니라고 본다.
⑤ 불교의 수행방법으로는 조사선,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등이 있으며, 위빠사나 수행법은 소승불교의 수행법이므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해설 : 불교의 신행과 수행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기에 신앙을 통해 수행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으며, 수행을 통해 더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業)과 연기를 믿어 과거에서 비롯한 죄를 참회하며, 수행을 통해 죄의 본성이 공함을 정견(正見)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4. 불교의 오계는 불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음 중 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②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③ 예의와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
④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
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으로 보호하라.

해설 : 오계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예의와 순결을 지키는 불사음(不邪婬),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불투도(不偸盜),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 술 등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는 불음주(不飮酒)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기독교 등 이웃종교의 가르침이다.

5. 불교에서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을 키울 것을 제시한다. 다음 중 사무량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慈) ② 비(悲) ③ 덕(德) ④ 사(捨) ⑤ 희(喜)

해설 : 사무량심은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는 자애로운 마음, 비는 안타까워 하는 마음, 희는 기뻐하는 마음, 사는 이러한 마음들의 평등함, 혹은 내려놓음을 말한다.

정답 : ①, ③, ②, ⑤, ③, ④, ④, ①, ⑤,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14 니까야 ②



▶한줄 요약
아함경과 니까야는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함경과 니까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모든 가르침을 모은 것으로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 읽겠다고 덤비지 말고 입문자 위한 발췌본부터 만나보십시오.

'안단테 안단테'로 만나는 초기경전

나는 아함경으로 불교 만났다

수많은 경전 가운데 나는 〈아함경〉으로 불교를 만났습니다. 내가 불교공부를 시작하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아함경〉을 읽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경전도 있어요"라거나 "그건 아주 초보자들이 가볍게 읽는 경이니 다른 경을 읽어야 합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은사께서는 초기경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고, 그 분을 따라서 종교적 사색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내가 〈아함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읽어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아함경과 니까야는 같은 초기경전이고, 아함경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함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차츰 니까야를 언급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함경〉이 대체 뭘 말하는 경이냐고 묻는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유는,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컬렉션(collec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함경의 '아함(阿含)'은 '아가마(Āgam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아가마'는 '전해져 내려옴(전승)'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야(Nikāya)에는 수집, 집합, 그룹, 모음집, 부집(部集)이란 뜻이 있습니다.(전재성, 〈빠알리-한글사전〉 424쪽)

〈아함경〉과 니까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모든 가르침을 모은 것이니 이 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르침을 모았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긁어모은 건 아닙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수행을 완성했다고 인정받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외운 것을 합송해내고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고 인정한 내용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완성한 제자(아라한)들이 모여서 합송한 당시의 정황을 경전에서 직접 만나고 싶은 분들은, 각묵 스님의 〈디가 니까야3〉 마지막 부분에 '디가 니까야 주석서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고스란히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함경은 4종류, 니까야는 5종류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천수경〉 등등 경전들은 저마다 소중한 붓다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경전의 바탕에는 초기경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제 말을 듣고 곧바로 검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지요. 그냥 '니까야', 그냥 '아함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까야, □아함경이라고 경전 이름 앞에 무슨 글자들이 붙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금강경〉 〈법화경〉처럼 한 권의 초기경전을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현기증을 느끼고 만만하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먼저 아함경부터 그 분류를 소개하자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아함'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 내용이 긴 30개의 경을 모은 것이 〈장(長)아함경〉, 중간 길이의 경 222개를 모은 것이 〈중(中)아함경〉, 주제별로 모은 1362개의 경은 〈잡(雜)아함경〉, 그리고 숫자별로 모은 472개의 경은 〈증일(增一)아함경〉이라 합니다. 이 모든 숫자를 합쳐서 2086가지 경이 '아함경'이란 이름 아래 모여 있으니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지요? 하지만 개중에는 아주 길이가 짧은 것도 하나의 경으로 치고, 또는 단행본으로 엮어도 좋을 정도의 긴 길이의 경도 하나로 치니 이 숫자에 주눅이 들 일은 없습니다.

아함경과 니까야는 '佛說 컬렉션들'
길이 등으로 4아함 · 5니까야 나눠
"무작정 다 읽어겠다고 덤비지 말고
입문자 위한 발췌본 먼저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니까야입니다. 다섯 부분으로 이뤄져 있어서 '5부 니까야'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분류 기준은 아함경과 같습니다. 길이가 긴 부처님 법문 33개를 모은 것이 〈디가 니까야〉, 중간 길이의 법문 152개의 경을 모은 것은 〈맛지마 니까야〉, 주제별로 법문을 모은 2875개의 경은 〈쌍윳따 니까야〉, 역시 숫자별로 모은 2198개의 경은 〈앙굿따라 니까야〉, 그리고 독립적인 경으로 이뤄진 것 15개를 모은 것은 〈쿳다까 니까야〉입니다. 경전 숫자를 기계적으로 합치면 5천이 넘습니다. 아함경보다 숫자가 더 많지요? 오죽하면 내가 '컬렉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불교가 다 담겨 있는 초기경전

이 수많은 경전 컬렉션에는 그야말로 불교라는 종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수행을 했고, 왜 붓다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마지막 법문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시던 당시 인도에는 어떤 수행자들, 성직자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무얼 주장했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그들의 사상과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와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이뤄져 있는지를 세세하게 일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참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업과 악업이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던 제자들과 일반 신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계기로 부처님을 만났고, 어떻게 수행했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불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시기와 질투, 양보와 포용 등등의 일화도 있습니다. 제자의 잘못된 생각을 부처님이 꾸짖는 모습도 보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이 간곡하게 일러주는 말을 굳이 싫다며 따르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제자도 있지요. 하늘의 신들, 악마도 등장합니다.

이만하면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거금을 주고 다 구입합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다가 이내 책장을 덮어버립니다.

"한글인 건 분명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걸 다 읽어야 하는가?"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피드백을 나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번역해 낸 역경가들의 고충을 잘 아는 나로서는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괜히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초기경전을 맛볼 수 있는 책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다 읽어가겠다고 덤비기 보다는 입문자를 위한 발췌본들을 먼저 만나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워밍업을 하신 뒤에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전체 읽기에 도전하세요."

먼저, 아함경을 읽고 싶은 분에게는 가장 먼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편저, 장승출판사)와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同)이란 책을 권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4아함 가운데 〈잡아함경〉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경들을 뽑아서 경전 내용을 그대로 싣고 이 경이 안고 있는 메시지를 저자가 읽어주고 있으며,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은 4아함 가운데 〈중아함경〉과 〈장아함경〉에서 엄선한 경을 저자의 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은 교리를 치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보다 초기경전을 처음으로 맛보고 싶은 일반 독자들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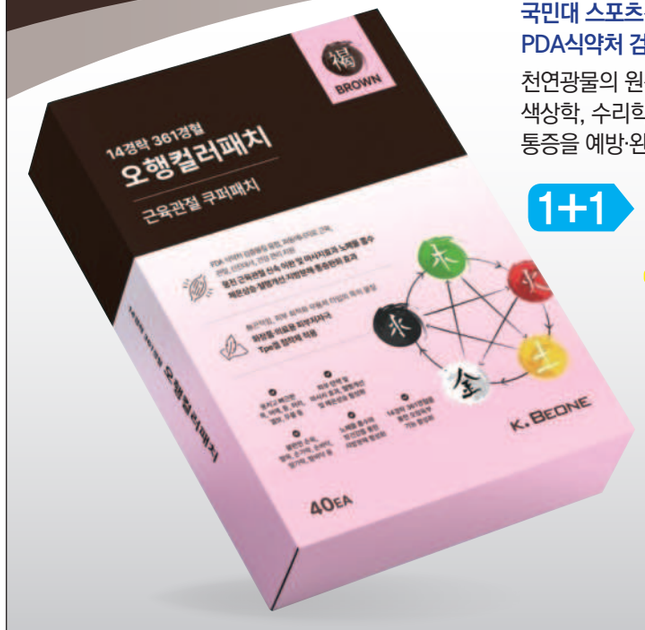
니까야를 읽고 싶은 분이라면 가장 먼저 일아 스님의 책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민족사)을 권합니다. 방대한 5부 니까야에서 입문자들이 읽어서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이며 공감할 수 있는 구절들을 모은 책입니다. '빠알리(Pāli)'란 니까야에 쓰인 인도고전어 이름입니다. 같은 저자의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은 5부 니까야에서 감명 깊은 구절들을 모은 것으로, 독송집의 형식을 띠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해 전에 낸 〈붓다 한 말씀〉은 5부 니까야 중에서 재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인 사랑, 인간관계, 돈 등과 관련한 디가 니까야 경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석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달아두었기 때문에 초기경전에서 재가자에게 들려주는 대표적인 경들을 경전 그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불교를 알고 싶다는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읽기 보다는 천천히 초기경전과 친해지기를 권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그룹 아바가 '안단테 안단테'에서 이렇게 노래하듯 말이지요. "…take your time, make it slow, andante andante, just let the feeling grow…(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느낌이 커지도록 해두세요)" 초기경전이 여러분에게 천천히 다가오도록 기다려주시기를 권합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메가선 골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14경락 361경혈 오행컬러패치 근육관절 쿠퍼패치 BROWN K.BEONE 40EA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인연줄에 얽힌 것 화끈히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질문 저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가슴으로 확 뚫리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채찍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깐 첫째,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다면 일체 모든 것을 거기 놓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또 있어요. 그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과 상봉을 해야만이 족하다고 할 수 있지요. 진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말하자면 자기 조상이에요. 자기 조상부터 발견해야 남의 조상도 내 조상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고, 내 몸뚱이 속에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을 다 항복받을 것이고, 모두 보살로 화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중생들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고 좋은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99% 부처가 된 것이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한 생각을 잘못해서 세세생생에 끄달린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안다는 거를 지금 관념 속에서, 그 습에 젖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청규는 이런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이런 것에 빠진다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남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을 찾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내게 갖다 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갖다 주지 않는 것도 없는 그 자체에 인연줄이라는 게 얽혀서, 얽히고 얽혀 있는 인연줄에 얽혀서 일어나지 못하지 말고, 인연줄에 얽힌 것을 화끈히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이런 거지요. 그러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마음을 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 용도가 생기면 행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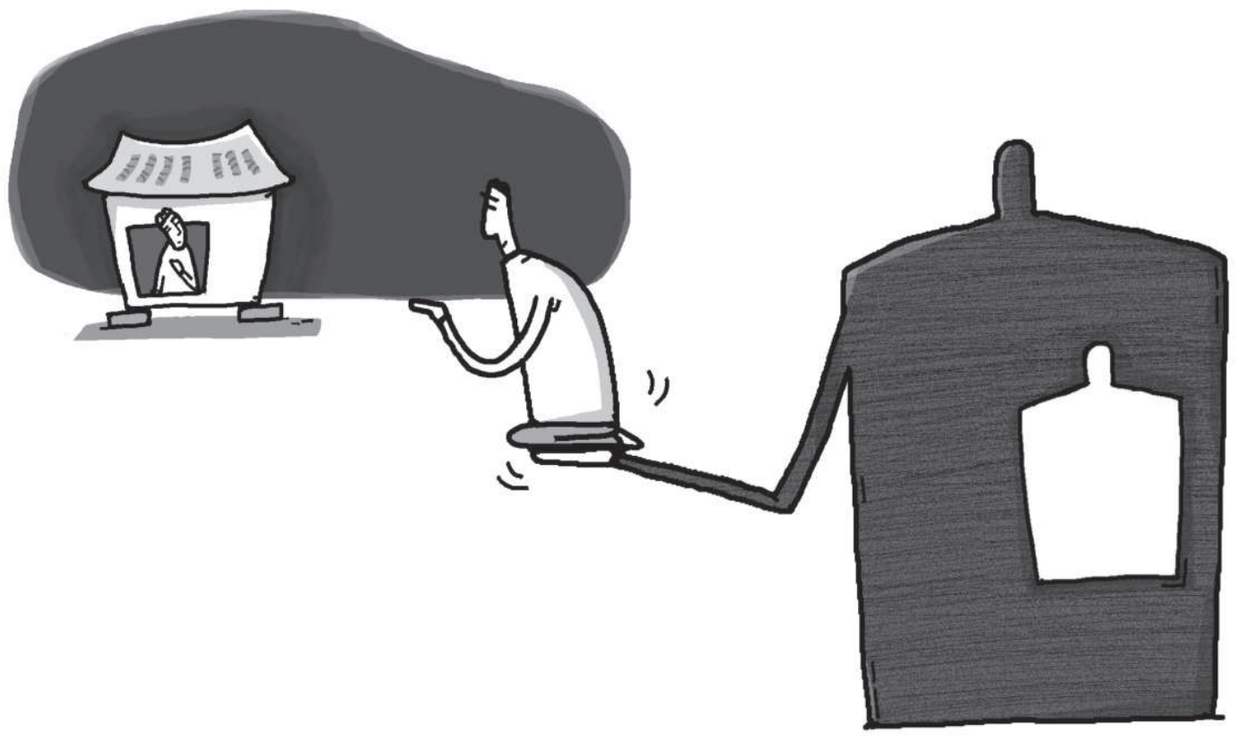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하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되는 일이고 안 된다.' 하는 거라면 다스리는 그 작용이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은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다' 그러곤 다시 놓게 될 때, 다시 굴러서 다시 돌아서 나오죠.

이게 직접 들어가는 순리요, 바로 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을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했던 것은 오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체 만생 만물이 돌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하나도 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나누는 삶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돈을 모으려고만 했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둘 아닌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힘든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 그 인생을, 수없이 진화돼서 형성되는 그 돌아가는 수레를 다 뼈 한 무더기로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니 멀리 봐도, 가깝게 봐도, 삼천 년 전도 현실인데 현실에 다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으로 보겠습니까?

깨치면 아주 좋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금을 감고 그냥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즐거운 건 사실이죠. 왜냐. 예를 들어서 막상 가난한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쓴다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럴 때, 그게 상황대로지 어떻게 골라가면서 합니까, 상황대로지. 그렇게 주고 나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주는 것밖엔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 남의 걸 달래서 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항상 얻어먹어야 되고 남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항상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 한생각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실천을 해 보세요. 주면서 살아야겠다 한다면 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얻어서 꼭 살아야지, 얻을 데도 많은데.' 이러면 꼭 얻어서 살게 되죠.

부처님의 밥도 말입니다, 저 부처님의 공양 밥도 그거를 얻어먹는 걸로 먹어선 안 됩니다. 내 밥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게 남도 퍼 주고 살잖아요.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 하면 어떻게 밥 한 숟가락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 밥이라야 맘대로 퍼 주지. 내가 못 먹더라도 퍼 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도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한생각 내 주고 돈을 주더라라도 그냥 줄 뿐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걸 줬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런 생각도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줬다고 하겠습니까,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을 공부로 삼으려면

질문 모든 게 공부 재료라고 그러는데 저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공부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의 중생이 튼튼하고 중생이 잘 먹어야 내가 잘 다니고 건강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생이 어떤 게 중생입니까? 자기 몸뚱이는 중생의 두목입니다. 그 두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중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생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같이 있죠.

그래서 한 생각을 잘해서, 아프게 했다면 네가 조립해서 네가 만든 거니까, 아프게 된 것도 잘못된 것도 어디가 다친 것도 모두 네가 그럭한 거니까 다시 낫게 할 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두고 마음으로서 믿음의 뜻을 가져라

☞ 19면에서 계속

있는 능력이 본래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뼛속이 썩어 들어가는 증세의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의 손에만, 의학적으로 배운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거기에 50%를 의존했다면 아니 되고, 40% 정도만 의존하시고 60%는 바로 그 자리에 다 맡겨서 놓으십시오. 보이는 데 몸으로서의, 물질로서의, 학술적으로 다루는 거는 한 40%만 믿으세요. 왜냐? 6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다는 점은, 자성을 믿기에 그 자성도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그 손이 내 손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마음도 둘이 아니게 되고 손도 둘이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100%가 되지요. 그래서 금방 추스르고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법 저래도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끄달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가 막혔어야 끄달리죠. 막힌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끄달립니까?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다면서 '요런 병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곤 붙들어요. 붙들지 마세요. 그건 한 찰나에 그냥 넘기세요. '통과 통과' 하고요, 그냥 넘기세요. 이 세상 평등 진리는 그냥 통과 통과 통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이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 병이 바로 내 공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나 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병이 길어서 고통을 받죠? 왜 고를 만들어서 받습니까? 그러니 통과 통과 하고서 닥치는 것에, 스스로 오는 것에 의해서 모든 걸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자기 자성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다 모든 걸 놓는 공부를, 맡겨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머리로 관하게 되는데…

질문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외아들인 저의 남편에게 너무 의지를 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마음공부를 하면서 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지극하게 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비우고 마음으로 관하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인공도 있는 것이요, 상대도 있는 것이요, 세상도 있는 것이요, 모두 이름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나를 발견하고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의식에서 벗어나도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오는 대로 그냥, 이거는 뚝 떼치고 또 딴 게 이렇게 대비해서 온다 하면 '아이구, 이건 또 무엇이야?' 이러고 싫어하거든요.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그거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거를, 자기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면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라.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려고 하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서 모두 가정의 12대 종손을 건질 수도 있다.

무슨 돈을 들여서 많이 차려 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길 텐데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 달라는 대로 안 되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만 번 내가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난 경험을 삼아서 오로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손을 이렇게 한데 모으고 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내 양심입니다. 양심을 맹세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를 등에 업고서 걸음을 걷는데 무겁다고 여러분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모든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자성의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진리 속에서, 즉 말하자면 끄달리지 말아야 여러분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둘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런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우린 부처님 하면 벌써 이거는 공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여러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인공 하면 포괄적인 주인공이지 어째서 개별적인 주인공입니까? 작게는 여러분의 속에 들어 있는 의식이 전부 한마음으로 모임의 장소, 한 생각일 것이요,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나 전체 한마음의 근본이 한데 합쳐지는 포괄적인 주인공이요, 또한 삼천대천세계가 한데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데 돌아가는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동시에 '내가 물이 없다' 이랬을 때는 요건 포괄적인 것에서 개별적으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것을, 입을 축이려도 포괄적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목을 축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공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면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서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이요, 네? 마음에다 하면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아요.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저거 해서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딴짓들을 하고.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공이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상황을 봐야지.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 한 발 딛고 받치고 굴리는 놈은 누구냐 이겁니다, 굴리는 놈. 이것이 내가 해서 누가 될 일이냐, 이것이 해서 누가 안 될 일이냐? 이것이 해서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지 않을 거냐? 이거를 해서 남이 보기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이런 거를 지켜보는 여러분이 있건만 무조건 하고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저 길 바깥에 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이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 '아하,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 보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려서 그거 되놓을 줄은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 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 짓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마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에다 놔라.' 하는 거. 주인공이 하란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 생활로 접어드는 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가정에 가지 말고 중이 다 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중 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약으셔서, '몸은 비록 이렇게 속세에 있으나 마음이야 스님과 저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주 틀림없이 고렇게 말을 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마음에 믿는 그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나 깨나. 그렇다고 해서 자나 깨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나 깨나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몸짓·발짓하는 거, 난 싫습니다. 왜? 귀신입니까. 아주 진득하고 무겁고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다. 근본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정신이, 즉 마음신이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몸뚱이가 같고 눈 코 달린 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 마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고난이 한 일 초에 막 나한테 다가왔다고 합시다. 그거를 아주 무겁게 그냥 놓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셔야지 만약에 그걸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방방 뛴다면 아주 어지러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안으로다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있으면 스스로서 그냥 굴려져서 스스로 평화스런 게 옵니다. 가정에도 모든 게.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 마음에다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다. 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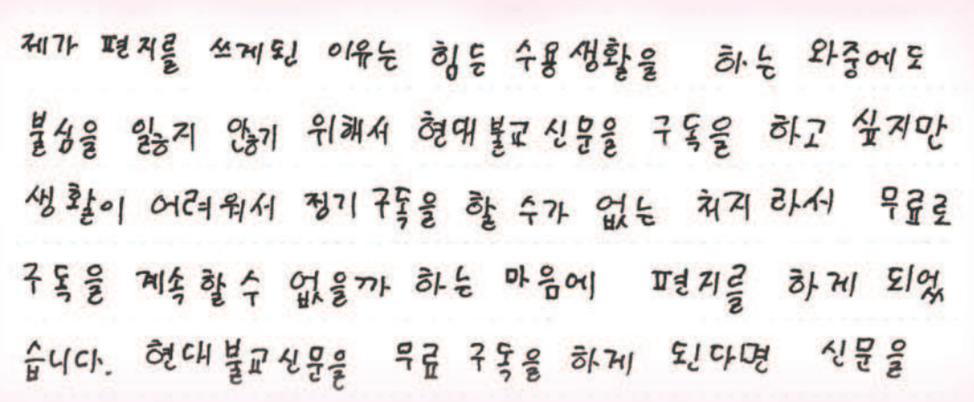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心 talk talk

⑲ 경계성 성격장애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보호 경계' 필요

자신의 눈을 포크로 찌른 여자. 영화 '베티 블루'의 주인공 베티(베아트리체 달)의 행동이다. 대학교 때 우연히 친구와 봤던 영화 베티 블루는 파격 그 자체였다. 아름다운 영상과 배경 음악은 절묘하게 어울렸고 문화적 충격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나를 압도하고 끝나 버린 영화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주인공 베티는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이다. 그녀의 행동은 지금도 가끔 기억난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녀는 야성적이고 육감적이며 무미건조한 삶을 살던 남자 주인공 조르그에게 활력을 줬다. 그리고 조르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대응하고 화를 내고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베티의 모습에 조르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고 자신만을 위해주는 여자의 매력에 그대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만족도 잠시, 경계성 성격장애의 행동에 금방 질려버린다. 그들은 중간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과 혐오, 기쁨과 분노 등 극단적인 감정에 휘영청 거리다가 그에 따른 극단적인 행동만이 존재한다.

커플 상담을 통해 만난 정이(가명)와 민수(가명)의 관계도 위태했다. 민수 씨는 여자 친구의 변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냥 웃었을 뿐인데 비웃었다고 뺨을 때렸고, 다음 날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 근처로 와 다정하게 주고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자신의 여동생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를 쳐다봤는데 식당 테이블의 술병이 벽으로 날라갔다. 헤어지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 이별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표정과 태도에서 애정이 식은 것처럼 보이면 자살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곤 하는 그녀였다. 자신을 버리면 정말 죽을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 글의 내용은 경계성 성격장애을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가족들이 대상이다.

먼저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헤어짐의 징조를 죽음처럼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상대를 붙들려 한다. 또 상대를 과대이상화하거나 폄하하는 양극단의 태도를 가진다.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를 보이며 만성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며 분노도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며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치료를 강요할 수 없고 쉽게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드물기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몫이며 책임이다.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

격렬한 감정 표현에 정신없이 휘둘려

비난은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

면 먼저 자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지만 그녀와 자신을 분리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분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경계는 사적인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이다.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개인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와 지침을 갖춰야 한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변덕스러운 요구에 자신의 삶이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성은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려 하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일거수에 집중해주기를 바라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설정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경계성 성격장애에게 안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비난과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과 경계를 유지하는 생활규칙, 이것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만났을 때 지녀야 할 태도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만족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온다. 누구의 법문에도 만족하지 않는 아뚤라는 재가신도 500여 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레와따 장로의 법문을 듣고 싶어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앉았다. 하지만 레와따는 은둔자로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아뚤라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사리뿟따 장로에게 가서 법을 설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리뿟따는 아비담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뚤라는 너무 심오하고 난해하다며 자신들에게 소용없는 법문이라 투덜거린다. 그리고 아난다 장로에게 사리뿟따 장로의 아비담마는 장황했다며 짜증을 내고 법을 요청한다. 아난다는 법문을 아주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해줬다. 그럼에도 아뚤라는 아난다의 법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며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하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그렇게 아뚤라가 언짢은 마음을 설명하는 동안 부처님은 그 불평을 들으며 말한다.

"사람들은 말 없는 이도 비난하고, 말 많은 이도 비난하고 알맞게 말하는 이도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을 이는 아무도 없다. 늘 비난만 받거나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비난받기 싫어서 혹은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의 요구에 지나치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은 "비난은 인간의 변함없는 습성이며 여래(부처님)마저 비난하거나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난과 요구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의 경계를 세워라.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⑬ 뼈와 근육의 역할

뼈·관절·근육 조화로워야 안정적으로 걷는다

뼈의 기능과 구조

사람의 몸은 206개의 뼈가 조립돼 형태를 유지한다. 이 뼈의 역할은 5가지로 운동, 보호, 지탱, 조혈, 무기질의 저장이다. 고등동물은 단세포 동물 같은 연체조직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뼈대라는 조직을 갖게 됐다.

이처럼 뼈는 신체의 형태를 제공하고 체중부하를 견디며, 직립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중력으로부터 버텨내는 힘을 가진다. 이런 역할을 하는 주요 뼈로는 척추뼈와 다리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뼈는 뇌나 척수, 내장 등의 기관을 겉에서부터 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머리뼈와 갈비뼈가 해당된다. 뼈의 조혈 기능은 뼈 안에 있는 조혈관 세포가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뼈는 칼슘이나 인을 축적해서 혈중으로 방출해 호르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뼈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뼈와 뼈 사이는 근육과 힘줄로 조립돼서 분리되지 않는다. 사람의 몸이 뼈가 없이 근육만으로 되었다면 몸의 무게를 똑바로 세울 수가 없고 한 팔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뼈는 압축력에 강하고 힘줄과 근육은 인장력에 강해서, 뼈와 근육의 인장력과 압축력이 합쳐져서 구조적인 힘을 유지하는 재질 역학의 복합체이다.

관절의 기능과 구조

관절은 접촉하는 2개 이상의 뼈를 연결하는 구조체로,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거나 극히 작은 부동관절과, 윤활성 연결로 움직임의 범위가 넓은 윤활관절 또는 가동관절로 나뉘어 있다. 부동관절은 뇌를 감싸는 두개골이나 폐와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가동관절은 윤활관절을 갖는 2개 이상의 뼈가 만나 움직이는 가동범위를 갖는다.

관절은 사람이 걷고 뛰고 잡고 활동하는 동안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관절주머니 안 연결돼 있는 뼈와 관절면 사이에서 운동을 한다. 이를 '관절주머니 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르기 운동, 미끄러지기 운동, 그리고 축 돌림의 3가지가 기본이 된다.



구르기 운동은 도로를 달리는 차의 타이어와 같이 회전하는 운동으로 접촉하는 면이 넓다. 미끄러지기 운동은 언 도로에서 겉도는 타이어와 같이 한 개의 점이 접하는 면 위의 다수의 점과 접하는 운동이다. 축 돌림은 바닥편의 한 개의 점에서 회전하는 팽이와 같이 관절면의 위의 한 개의 점이 접촉하는 면 위의 한 개의 점 위에서 회전하는 운동이다.

걷고 달리는 것은 관절의 3가지 운동이 하나의 중심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의 움직임에 여러 개의 중심점에서 뼈와 뼈가 서로 구르고 미끄러지고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매우 복잡한 활동이다. 그리고 그 활동을 이어주는 힘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의 기능과 구조

근육은 뼈와 함께 신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뼈와 근육을 합해 근골격계라 부른다. 근육은 근섬유(근육 세포) 다발로 구성돼 있으며 동력을 냄과 동시에 뼈, 관절, 내장 등의 신체기관을 지켜주는 갑옷 역할도 하며 일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한다. 또한 동작의 중심인 관절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관절의 움직임과 결합 유지를 담당한다.

근육이 일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길항작용(productive antagonism)에 의한 균형의 유지이다. 근육의 모든 운동은 바로 이런 길항작용이 있다. 이들 길항근에는 한쪽이 수축할 때는 다른 쪽이 이완하는 식으로 각각의 지배 신경 사이에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 거기에 따라 운동의 정도나 강약이 정해진다. 또 양쪽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관절은 고정된다.

근골격계-뼈, 근육 관절의 조화

이제까지 우리는 뼈, 근육 그리고 관절에 대하여 각각 알아봤다. 이들이 모여 힘을 내어 사람이 형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갖게 하며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총합체를 근골격계라고 한다. 근골격계는 신체의 뼈(골격 구성), 근육, 힘줄, 인대, 관절, 연골, 기타 결합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움직일 때 각 근육과 관절은 서로 얼마나 접촉하고 언제 멀어지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움직임의 제어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근육 운동이 어려워진다. 근골격에서 근육 조직은 힘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연결조직은 내부와 외부의 구조를 에워싸고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 준다. 신경조직은 근육에서 뇌까지, 뇌에서 근육까지 정보를 전달시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혈액을 통해 에너지와 산소를 운반한다.

〈비바미(Viva!me)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평일 아침 7시 30분!
보고 싶은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3:1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송산, 일각, 지형스님의
이판사판 - 맛수다 시즌2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20:30 / 일 14: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19:00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1학년 대학 새내기이지만 '불교동아리 회장'입니다

2018년 3월, 대학교 새내기 시절 동아리 박람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교동아리 찾기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서 활동했던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가정환경 때문이었는지, 불교의 인연이 나를 이끌었는지, 자연스럽게 인제대 불교학생회(IBS) 가입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하반기, 당시 동아리 회장이 군 입대를 앞두고 1학년인 내게 동아리 회장직을 권유했다.

1학년으로 회장의 역할을 맡기에 부담을 느꼈으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깊은 인연을 느꼈다. 1학년 새내기지만 자연스럽게 대학교 중앙동아리 회장이 됐다. 이 사건이 불교와 큰 인연의 시작이자, 재학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큰 파장을 가져다 줬다. 이번 칼럼을 통해 어른의 종교,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이 큰 불교가 20대에게는 어떤 모습인지 20대로 살아 온 지 7년차인 나의 경험들을 나열해 소개해보려 한다.

누군가 나의 대학교 1학년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연속된 좋은 인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것 같다. 우선 내가 만난 좋은 인연을 나열해보자면 첫째, 마음이 맞는 좋은 동아리원 선후배, 동기들과의 인연. 둘째, 불교와의 인연,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게 한 인연.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의 인연이 있다.

그 중 오늘은 첫 번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새내기 동아리 회장으로서 처음 맞이했던 동아리 박람회는 큰 부담이었다. 동아리 회원 수가 저조해 박람회를 통해 많은 회원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무겁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학우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의 소중한 친우인 동아리 회원들과 긴 고민 끝에 대단한 종교적 깨달음보다는 우선, '절에 데리고 다녀보자'를 목표로 삼았다. 그런 와중 졸업을 위해서 봉사시간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록 학우들에게 봉사는 졸업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일지라도, 봉사를 통해 작은 뿌듯함을 시작으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불교재단 장애인복지관인 도림원과 연결해 동아리 정기봉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작은 봉사시간을 채우고 싶은 학우들이었지만 결국, 봉사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먼저 체험하고 나아가 불교 행사 참여로 이어졌다. 사찰 방문부터, 불교에 대한 공부까지 동아리 회원들의 삶 깊숙히 불교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언니, 절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을 듣고 불교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작은 평화를 선물했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레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었다. 새내기의 패기가 더해져 동아리를 잔잔히 옳은 방향으로 잘 이끌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겨울 밤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동아리 회원과의 인연에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⑦ 왕유의 오도송

'詩佛'이 바라본 삼라만상

사슴 울타리(鹿柴)
텅 빈 산 사람은 보이지 않고(空山不見人)
아득히 들려오는 두런거리는 사람 소리 뿐(但聞人語響)
보라 석양빛이 숲 속 깊숙이 들어와(返景入深林)
다시금 푸른 이끼 위에 비치네(復照靑苔上)

당나라 삼시인(三詩人)인 이백을 시선(詩仙), 두보를 시성(詩聖) 그리고 왕유(699~759)를 시불(詩佛)이라 칭한다. 왕유는 돈독한 불심으로 불교적인 삶을 살아 유마힐 거사에 빗대어 왕마힐(王摩詰)이라고도 불렸다.

왕유는 중국 장안의 동남쪽에 위치한 종남산과 남전산 사이에 흐르는 풍광이 빼어난 강 기슭에 망천장(輞川莊)이란 별장을 짓고 벼슬이 상서(장관)에 이르렀지만 40세에 사직하고, 평생을 홀로 살면서(부인과 30세에 사별) 낮에는 불교경전을 보고 밤에는 참선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선적 경계를 시로 읊었다.

그가 망천장에서 읊은 산수 자연시 가운데 '사슴 울타리'는 선적인 풍취가 은은하게 잘 드러난 선취시(禪趣詩)의 전범이 되어 절창으로 뽑히고 있다. 왕유는 '망천 20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를 지었다. 소동파가 이 '망천도'를 보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유명한 평론을 하였다. 남종화의 비조가 되어 중국은 물론 조선, 일본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언절구의 20자 짧은 정형시다. 1구(起句) "텅 빈 산 사람은 보이지 않고"에서 선의 고요와 적막함을 표현하고, 공산(空山)은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이다. 실체가 없는 반야 공은 불교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을 상징한다.

2구(承句) "아득히 들려오는 두런거리는 사람의 소리 뿐"은 눈에 보이는 것(見)은 없으니 작은 소리라도(聞, 響) 있어야 살아 있는 활공(活空)이 된다. 적막뿐이면 죽은 공이다. 보조 지눌 선사는 "우리의 본래마음(자성 불성)은 공적하지만 신령스럽게 깨어 있는 적적성성(寂寂惺惺)하고,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이라고 하였다.

푸른 이끼는 중생계, 석양은 자비광명 상징
왕유, 이끼서 생명력 있는 중생 모습을 봤다

3·4(轉結)구 "보라 석양빛이 숲 속 깊숙이 들어와 다시금 푸른 이끼 위에 비치네"는 반전(反轉)의 깨달음이 나타났고(返, 入), 부처의 은덕이 높고 넓게 비춘다(照, 上). 깨달음을 얻은 눈으로 부처의 광명이 온 누리에 빛나는 모습을 바라본다. 한시의 맛은 운율과 서로 짝이 어울리는 대구의 절묘함이다. 왕유의 시는 음율이 아름다운 것이 최고로 평가받았다. 전문 불교용어를 한 자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의 깊은 사상을 잘 드러내는 고수이다.

이 시의 소재는 푸른 이끼다. 깊은 숲 속 골짜기에 석양빛이 깊숙이 들어와 푸른 이끼를 비추는 전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양탄자처럼 바닥에 잘 달라붙어 보드랍게 깔려있는 푸른 이끼의 모습은 선경이다. 이끼의 미학이다. 여기서 푸른 이끼는 중생계의 모습을, 석양볕은 부처의 자비광명을 상징한다. 이끼는 바다 식물이 처음 육지로 나오는 선태류 식물이다.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하고, 햇볕도 약간은 있어야 하고, 바람 통풍은 필수적이다. 석양볕이 가장 좋다. 이끼는 홀로 자랄 수 없다. 군생집단으로 모여야 잘 자란다. 가난한 민초(民草)와 같다. 왕유는 푸른 이끼에서 생명력 있는 중생의 모습을 보았다.

지난해 아내와 아들 지수의 손을 잡고 늦겨울 해질녘에 일본 교토의 은각사를 참배했다. 은각사는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끼고 자리 잡은 전형적인 일본 정원 문화의 정수를 꾸민 작은 산사인데 물이 졸졸 흐르는 골짜기 사이로 온통 푸른 이끼가 경내를 덮고, 하얀 은으로 단청한 법당이 단정하고 청아하다. 왕유의 시 '녹채(鹿野苑)'가 떠올랐다. 어디선가 불쑥 사슴이 나타날 것 같았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이승만과 한국불교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1955년 12월 8일까지 총 8차례 '유시'를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한국불교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겪었다. 분명, 교단 정화로 인해 비구승 중심의 불교 전통이 회복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지만, 진행 및 방법상의 문제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유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기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던 이승만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특정종교의 내부 문제에 대해 마치 제왕처럼 명령을 하달하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재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승만이 남긴 그림자는 유시에만 있지 않다. 노골적으로 기독교계에 특혜를 주면서 기독교의 성장을 도왔다. 형목제도와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불교정화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승만의 유시는 불교계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불교가 양분돼 갈등하고 있는 동안 이승만은 개신교 우대 정책으로 펼치며 현재 개신교 교세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 사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태고종은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으로 다시 비구-대처의 갈라치기를 다시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만'이라는 외풍으로 또 흔들릴 수 없지 않는가. 불교는 '자강(自强)'해야 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상봉길경 불봉재해’ 기원합니다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지난 7월 1일 밤 9시경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 가운데는 승진 축하 회식 뒤 참변을 당한 분도 있다고 한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주로 청장년층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천재지변이 됐든 재앙이 닥쳤을 때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며,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가뭄, 화재, 전염병,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따위의 재앙이나 재해는 그래도 조금은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가령 태풍 등이 일어나려 하면 파충류들이 이동을 시작한다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이나 재해는 예민하게 관찰하고 일체 행위를 삼가며 예방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명심보감〉에서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신표(愼是護身之符)”라고 하는 태공(太公)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앙은 몸을 근신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모면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재수없어 그렇다거나 신의 뜻으로 돌리며 위로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일 것이다.

신중, 佛法과 중생 수호의 화신
예상 못한 재앙 극복하기 위해
우린 신중의 가호 바라며 기도

그렇다면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재앙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또 불교의 대응법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불법과 불자를 옹호하고 지켜주고자 서원한 신중의 신통력에 의지한다. 신중은 104위 신중(神衆)이니, 39위 신중이니 하는 분들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성자(聖者)·금강(金剛)·보살(菩薩)·명왕(明王)·천왕(天王)·선신(善神)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그분들은 불법 문중에 머물며 신통력으로 불법과 불자를 재난으로부터 가호한다. 불교는 옹호 성현이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가호해준다고 믿는다.

해서 불자들은 신중의 가호를 바라며 신중기도를 한다. 주로 정초나 월초에 주로 많이 하는데, 공양 올리고 명호를 부르며 우리를 가호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상봉길경 불봉재해(常逢吉慶 不逢災害)’라고 하여, 언제나 좋은 일 만나고, 재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오묘한 우주의 질서를 깨닫지 못한 우리로서는 신통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간절하게 기원함으로써 신중의 가호를 통해 우리의 안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신중의 본질을 오해하는 이들은 미신이라고 폄하한다. 물론 신중이 무형으로 형태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신중은 깨달은 이들이 불법과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으로 등장하는 화신으로 ‘여래화현원만신통대예적금강성자’이시다.

불법을 옹호하고 우리를 가호하며, 지혜의 절정이자 깨침의 화현이신 신중. 근신하며 정성 다해 나날이 무심으로 올리는 신중기도가 절정에 닿으면, 우리는 재해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앙하고 바르게 신행하는 것이 불교의 재해방지법이 아닐까 한다.

나노사회와 나노 인플루언서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나노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다. 나노사회는 사회 트렌드가 구성원마다 서로 다르고, 조각조각 쪼개진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의 파편화 현상이 온라인상에서도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나노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이다. 나노 인플루언서란 팔로워 수가 1000명에서 1만 명 미만인 인플루언서들을 칭하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는 수십만명에서부터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팔로워를 거느린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나노 인플루언서는 소규모의 끈끈한 팬덤층을 형성하며, 좁지만 타겟이 명확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라면 최소 팔로어 1만 명은 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버린다. 나노 인플루언서의 부상으로 온라인 세상은 나노 사회의 또다른 진원지가 되어 현실 세계의 파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부상은 이들이 10~20대의 Z세대와 알파세대(합쳐서 잘파세대)의 선택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세대보다 SNS 체류시간이 길고, 취향이 세분화된 특징을 보이는 ‘잘파세대’의 욕구는 특화한 아이템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공급전략과 잘 맞아 떨어진다. 잘파세대로부터 시

팔로워 1만명 ‘나노 인플루언서’
‘나노사회’로 가는 현상 담아내
공동체 유대 유지 위한 고민을

작한 나노 인플루언서 시장은 다른 세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삶의 다양한 구석에서 신규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새록새록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나노 인플루언서가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장악한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가 중요하게 자리한다. 먼저 고가의 카메라나 편집 인력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진입 장벽이 파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제작이 어려운 높은 품질의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의 이용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숏폼은 소셜미디어 시장 판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숏폼이 대세인 것은 유튜브 쇼츠의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유튜브의 국내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이 지난 해 말 40시간을 넘은 것은 쇼츠 이용률의 증가에 기인한다. 인스타그램 역시 총 사용시간에서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제치고 2위로 올랐는데, 숏폼 콘텐츠인 ‘릴스’가 큰 인기를 몰고 온 결과로 분석된다.

나노 인플루언서의 등장이 메가 인플루언서 시장을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메가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차원의 장기적 전략에 유용한 반면, 나노 인플루언서는 세분화한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소구하기 때문이다.

나노사회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우려를 내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나노사회를 가속화하시키고 있는 지금, 공동체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인류가 공생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社 說

제22대 국회 정각회 창립에 부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7월 3일 제22대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제22대 국회 정각회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5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구성원 면면들을 살펴보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추미애 의원과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 대표까지 이름을 올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낸 신심 높은 불자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팔정도 가르침을 실천해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야 상생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초반부터 갈등 형국이다.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7월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둘로 쪼개진 국회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화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쟁(爭)’을 ‘화(和)’하려면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보살의 마음은 결국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불교 정신과 맞닿는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정책을 실행할 법안을 만든다. 그 법안은 우리 일상생활은 크고 작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보살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국회 정각회원들에게 ‘보살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사찰, 계층포교 공간 마련 나서야

서울 봉은사는 6월 30일 경내 보우당에서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전문가들이 선생님이 돼 진행한 법회에서는 영어로 사찰예절을 배우고, 게임도 하며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봉은사는 매월 1회 영어법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 신도 연령 구조는 타종교와 달리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 신도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로 인한 결과물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봉은사가 시작한 어린이 영어법회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어도 배우고, 불교도 알 수 있는 영어법회는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사찰로 올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실 영어법회가 봉은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영어법회를 운영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현재는 출생률 감소로 사찰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줄었고, 학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학생이 되면 사찰을 잘 찾지 않게 된다.

결국, 사찰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 니즈를 파악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법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계층포교를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